

공유와 협업의 글쓰기 플랫폼, 위키

김지선* · 장문석** · 류인태***

〈차 례〉

1. 머리말: 디지털 환경과 인문학
2. 지식 편찬 플랫폼으로서의 위키
3. 집단과 지성 그리고 공유와 협업
4. 인문학 연구 · 교육 플랫폼으로서의 위키
5. 맺음말: 혁명을 넘어 일상으로

[국문초록]

이 글은 인문학 글쓰기의 새로운 토대인 디지털 환경에 유의하여 인문학 연구 및 교육 플랫폼으로서 위키의 의미와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1장에서는 아날로그 환경의 선형적 글쓰기와 디지털 환경의 조합적 글쓰기를 비교하였다. 2장에서는 소프트웨어 엔진, 데이터베이스, 웹사이트 등 위키의 여러 외연을 조망하였으며, 멀티미디어 활용 플랫폼이자 데이터 편찬 플랫폼으로서 위키가 지닌 의미를 논의하였다. 3장에서는 웹상의 대표적 위키 활용 사례를 검토하는 가운데, 인문학의 영역에서 위키가 협업과 공유의 지식 플랫폼으로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4장에서는 인문학 연구 플랫폼으로서 위키를 활용한 여러 사례를 살펴보았으며, 위키 환경에서 가능한 인문학 교육의 구체적 형식이 무엇인지 디지털 리터러시, 미디어 리터러시, 데이터 리터러시의 차원에서 검토하였다.

[주제어] 위키, 미디어위키, 위키데이터, 집단지성, 전자글쓰기, 하이퍼텍스트, 디지털 리터러시, 미디어 리터러시, 데이터 리터러시, 디지털 인문학, 연구, 교육

*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인문정보학과 박사과정. 공동 제1저자

** 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조교수. 공동 제1저자

***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후연구원. 교신저자

1. 머리말 : 디지털 환경과 인문학

이 글은 디지털 환경과 인문학이라는 맥락을 염두에 두면서, 인문학 연구 및 교육 플랫폼으로서 위키의 의미와 가능성을 검토한 글이다.

1980년대 이후 한국의 인문학 연구자들은 컴퓨터를 활용해 글을 쓰기 시작했으며,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인터넷을 활용해 인문학 정보와 지식을 검색하는 환경이 보편화되었다. 특히 2000년 이후 국사편찬위원회와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등 인문학 자료와 정보를 다량으로 소장한 대표적인 국공립 학술기관이 각종 아카이브와 데이터베이스를 웹상에서 서비스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가운데서도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은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 등 전문적인 인문학술 정보를 대상으로 검색 서비스를 제공해온 대표적 기관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최근 2~30년간 한국의 인문학 연구와 교육을 둘러싼 환경은 급격한 디지털적 전환(digital turn)에 놓여 있었다.¹⁾ 하지만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등 웹을 통해 제공되는 인문학 자원이 증가하는 것과 별개로, 인문학 연구 및 교육과 디지털 환경이 본격적으로 마주할 기회는 좀처럼 마련되지 않았다. 대학 및 대학원의 인문학 교육 및 연구는 현재도 여전히 전통적인 방식의 읽기와 쓰기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고 있다.

이 글은 필연적 조건으로서 디지털 환경과 마주한 인문학 연구와 교육의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하는 데서 비롯하였다. 다만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미리 언급해두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가능성의 탐색이 전통적 방식의

1) 한국의 인문학 지식과 정보가 디지털 환경에서 유통되는 현실을 검토할 경우, 상업적 성격의 플랫폼이 논문 원문 제공을 과점하고 있고, 연구재단의 지원으로 구축된 각종 데이터베이스의 활용성이 그다지 높지 않으며, 그 외에 학술과 관련한 여러 웹 자원이 비균질적으로 흩어져 있는 등 여러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 한국의 인문학 연구자들은, 인문학 자료의 디지털화 작업을 국가 기관이나 사설 업체가 주도하고 그러한 체계가 공고해지면서, 연구자의 주체성이 소외되고, 학술 공공성을 온전히 갖추지 못하는 상황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그리고 연구자들이 자발적으로 온라인 학술지식의 공공성과 학술 정보의 Open Access 운동이 필요함을 주장하면서 <새로운 학문 생산 체계와 '지식 공유'를 위한 학술 단체 및 연구자 연대 선언>(2019.8.29.)을 천명하고, '새로운 학문 생산 체계와 지식 공유를 위한 학술단체와 연구자 연대'를 결성하였다.

참고 url : <https://knowledgecommoning.org/>

읽기와 쓰기가 내포한 미덕과 배타적 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디지털 환경의 조건을 보다 적극적으로 사유하기 위해 이 글은, 논지 전개 과정에서는 아날로그 환경과 디지털 환경의 차이를 부각하기도 하겠으나, 궁극적으로는 디지털 환경에서 전통적인 글쓰기의 미덕을 존중하는 가운데 새로운 인문학 글쓰기의 가능성과 진화를 모색해보고자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 글이 이미지나 동영상을 다루는 멀티미디어 플랫폼이 아니라 텍스트 자료를 주로 다루는 위키를 대상으로 삼은 것 역시 그러한 이유에서이다.

이와 관련해 디지털 환경과 인문학 글쓰기의 진화에 대한 논의는, 컴퓨터를 통해 인문학 글쓰기를 수행한 이래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 그 변화의 징후를 가장 먼저 알아차리고 그 의미를 심문한 이들은, 1980~90년대 PC를 이용해 글을 쓰기 시작하던 시기, 전통적 글쓰기 훈련 속에서 성장한 인문학 연구자들이다.

펜으로 쓴 원고는 줄글이 가진 완강한 선형적 속성이 맥락과 일관성을 강조한다면, 수정이라는 비선형적 운동이 용이한 컴퓨터로 쓴 원고에서는 글의 각 단편들의 자율과 상관성이 강조되고, 따라서 맥락적 글쓰기로부터 조합적 글쓰기로 나아간다.²⁾

1990년대 중반 비평가 정과리는 ‘펜으로 쓴 원고’와 ‘컴퓨터로 쓴 원고’를 대비적으로 이해하였다. 그는 ‘펜으로 쓴 원고’를 ‘선형적 속성’과 ‘일관성’을 강조하는 ‘맥락적 글쓰기’로 이해하였으며, ‘컴퓨터로 쓴 원고’를 ‘비선형적 운동’과 ‘자율성’에 근거한 ‘조합적 글쓰기’로 이해하였다. 그보다 조금 앞선 시기 미디어 연구자 빌렘 플루서 역시 아날로그 환경에서의 글쓰기와 디지털 환경에서의 글쓰기의 소통 형식을 각각 ‘직선’과 ‘망’으로 대비하여 제시하였다. 동시에 그는 아날로그 환경의 글쓰기에서 발신자는 고정된 정보의 제공자로서 기능하고 수신자는 창작자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는 위치에 있었다면, 디지털 환경의 글쓰기에서 발신자는 미완성의 의미를 발신하는 존재이며 수

2) 정과리, 『문명의 배꼽』, 문학과지성사, 1998, 177쪽.

신자는 자신의 고유한 맥락에서 망을 형성하는 존재로 이해하였다.³⁾

두 사람의 논의는 웹 환경이 보편화되기 이전 PC 기반의 글쓰기를 대상으로 진행된 것이었다. 하지만 웹 환경이 보편화되고 하이퍼링크 등 웹 기술의 활용이 증가하면서 정과리가 언급한 의미 단위의 ‘자율과 상관성’이 더욱 강조되어 왔다는 점에서 그의 통찰과 시사점은 현재에도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일본의 정보기호학자 이시다 히데타카가 아날로그 환경에서의 글쓰기 메시지는 그 의미와 형태가 고정되어 있는 것에 비해, 디지털 환경에서의 글쓰기 메시지는 그 의미와 형태가 가변적이라고, 곧 플랫폼화되어 있다고 지적한 것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⁴⁾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아날로그 환경에서의 글쓰기와 디지털 환경에서의 글쓰기를 간략히 비교해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1〉 아날로그 환경의 글쓰기와 디지털 환경의 글쓰기 차이

	아날로그 환경의 글쓰기	디지털 환경의 글쓰기
글쓰기의 성격	선형적/맥락적 글쓰기	비선형적/조합적 글쓰기
발신자의 역할	완성된 정보 발신	미완성의 의미 발신
수신자의 역할	발신 정보의 정확한 수신	자신의 맥락에서 정보 재구성
의미의 형태	고정적	플랫폼화(가변적)
의미의 완결성	완결성	가변성 및 조합·확장 가능성
논리 구조	직선	모자이크, 망
작업의 형식	개인 작업	공동 작업

이 글에서 주로 다루고자 하는 위키(Wiki)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글쓰기 특징을 잘 보여주는 동시에, 아날로그 환경에서의 글쓰기 형식이 지닌 미덕 또한 동시에 갖추고 있는 플랫폼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위키는 위키피디아와

3) 빌렘 플루서, 윤종석 역, 『글쓰기에 미래는 있는가』, xbooks, 2015, 92, 127, 233, 237, 246쪽 참조. 독일어 원서 *Die Schrift: Hat Schreiben zukunft?*는 1987년에 간행되었다.

4) 이시다 히데타카, 윤대석 역, 『디지털 미디어의 이해 - 플랫폼과 알고리즘의 시대 읽기』, 사회평론, 2017, 218~219쪽.

나무위키 등을 통해 이미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익숙한 지식 플랫폼일 뿐만 아니라, 인문학 연구와 교육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활용되어 온 일종의 디지털 글쓰기 공간이기도 하다. 디지털 기반의 본격적 지식 플랫폼이자 글쓰기 공간으로서 위키를 통해 디지털 환경과 인문학 글쓰기가 만나는 접점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이유에서이다.

본론의 첫 번째 장(2장)에서는 위키의 기술적 배경을 검토하고, 두 번째 장(3장)에서는 현재 웹에서 운영되는 대표적인 위키 사례를 검토하면서, 협업과 공유의 지식 플랫폼인 위키를 인문학 글쓰기 플랫폼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그리고 세 번째 장(4장)에서는 인문학 연구와 교육 플랫폼으로서 실제 위키가 활용된 사례를 짚어봄으로써, 디지털 환경에서의 인문학 글쓰기의 진화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2. 지식 편찬 플랫폼으로서의 위키

1) 위키: 소프트웨어 엔진, 데이터베이스, 웹사이트

최초의 위키는 위키위키웹(WikiWikiWeb)이다. 위키위키웹은 1995년 프로그래머인 워드 커닝햄(Ward Cunningham)이 프로그래머들 간의 아이디어 교환을 위해 만든 협업 소프트웨어 기반의 웹사이트이다.⁵⁾ 위키(wiki)는 하와이어로 ‘빨리(quick)’라는 뜻으로, 위키위키웹은 ‘매우 빠른 웹’을 의미한다.⁶⁾ 위키위키웹은 다수의 사용자가 웹 브라우저 상에서 복잡한 HTML을 사용하지 않고 간단한 마크업 언어(Markup language)를 다루는 것만으로도

5) 위키위키웹은 1995년 3월 25일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참고 url: <http://wiki.c2.com/>

6) 워드 커닝햄은 2005년 “Correspondence on the Etymology of Wiki” 홈페이지를 통해 “Wiki”의 어원에 대해 어원학자(etymologist) 및 사전 편찬자(lexicographer)와 주고받은 서신을 공개하였다. 해당 내용에 따르면 wikiwiki는 워드 커닝햄이 하와이에 처음 방문했을 때 알게 된 첫 번째 하와이어로, 공항 카운터 직원이 하와이 호놀룰루 국제공항 터미널 사이를 운영하는 셔틀버스인 ‘Wiki Wiki Bus’를 타라고 안내하면서 ‘wiki wiki’의 뜻이 ‘quick’임을 알려 주었다고 언급하였다. 참고 url: <http://c2.com/doc/etymology.html>

웹문서를 빠르게 작성하고 관리할 수 있게끔 고안되었다.⁷⁾ 커닝햄은 위키를 통해 다루어지는 정보의 생성·수정·검색·관리가 용이하게끔 데이터베이스를 연동하였다.⁸⁾

워드 커닝햄에 의해 탄생한 위키의 최초 형식을 살펴보면, 웹 브라우저에서 여러 사람이 쉽고 빠르게 정보를 편찬·공유할 수 있는 대표적인 협업 플랫폼으로서 위키가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위키는 간단한 마크업 언어로 정보를 편찬할 수 있게끔 한 소프트웨어 엔진이자, 편찬된 정보가 체계적으로 정리·누적될 있게끔 한 데이터베이스이자, 그 모든 것들이 웹 환경에서 다수의 인원에게 구동될 수 있게끔 한 웹사이트이다. 이 점에서 위키는 ‘협업’과 ‘공유’라는 철학을 현실화할 수 있는 기술적 토대를 태생적으로 갖추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위키위키웹(WikiWikiWeb)의 등장 이후 위키 소프트웨어는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로 개발되었다. 그 중 대표적인 위키 소프트웨어는 미디어위키(MediaWiki)이다. 미디어위키는 위키 마크업(Wiki markup)이라 불리는 언어를 사용하며 위키에서 생성된 정보를 관계형 데이터베이스(RDB)에 저장해 관리한다.⁹⁾ 미디어위키로 구동되는 대표적인 웹사이트는 주로 웹 백과사전으로 지칭되는 위키피디아(wikipedia)이다. 아래 표는 위키피디아를 포함해 국내에서 가장 많은 문서(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4가지 위키 사례를 정리한 것이다.

7) 워드 커닝햄은 위키위키웹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I invented a website that anyone in the world can write on.” - Malia Spencer, “5 questions with Portland-based wiki inventor Ward Cunningham”, *PORTLAND BUSINESS JOURNAL*, 2016.7.18. 참고 url: <https://www.bizjournals.com/portland/blog/techflash/2016/07/5-questions-with-portland-based-wiki-inventor-ward.html>

8) 이는 그가 1995년 3월 16일 동료에게 보낸 메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고 url: <http://c2.com/wiki/mail-history.txt>

9) 미디어위키 설치 시 SQL, MariaDB, PostgreSQL, SQLite 등과 같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RDBMS)을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다.

〈표 2〉 규모 면에서 국내를 대표하는 4가지 위키 사례 (문서 수량 기준 정렬)

웹사이트	운영 기관	개설일	문서 수량 ¹⁰⁾	사용자 규모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언어
나무위키	umanle S.R.L.	2015. 4.17.	3,326,165	259,524	더 시드 (the seed)	미상	나무마크
한국어 위키백과	위키미디어 재단	2002. 10.11.	2,454,516	668,598	미디어위키 (MediaWiki)	My SQL	위키 마크업
한국어 위키낱말사전	위키미디어 재단	2004. 5.9.	418,368	24,179	미디어위키 (MediaWiki)	Maria DB	위키 마크업
리그베다 위키	개인 운영	2007. 3.1.	284,828	미상	모니위키 (MoniWiki)	없음	모니위키 문법

〈표 2〉에 정리된 4가지 위키는 모두 ‘지식 공유 플랫폼’을 자처한다는 측면에서 유사한 성격을 지닌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각 위키는 상이한 위키 엔진을 기반으로 하며, 그에 따라 지원되는 데이터베이스와 위키 언어가 다르다. 예컨대 나무위키는 ‘더 시드(the seed)’라고 불리는 비공개 엔진으로 구동되며, 나무위키 자체 언어인 ‘나무마크’ 언어를 사용하는 위키이다. 리그베다 위키의 경우 모니위키(MoniWiki) 엔진 기반의 모니위키 문법을 사용하는데, 데이터베이스(RDB)를 연계하는 미디어위키와 달리 텍스트 파일로 정보를 저장 및 관리하는 방식이다.

웹사이트로서 위키가 지닌 보편적 특징이 있고 그것이 드러나는 가시적 양상만을 놓고 볼 경우 ‘위키’로 명명되고 통용되는 여러 지식 플랫폼이 모두 동일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겠으나, 한편으로 소프트웨어 엔진이자 데이터베이스로서 그것들이 구동되는 요소를 기술적으로 검토할 경우 완전히 동일한 것이라고 정의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분명한 것은 프론트엔드(front-end) 차원에서 인지되는 웹사이트로서 위키, 백엔드(back-end) 차원에서 인지 가능한 소프트웨어 엔진으로서 위키 그리고 넓은 외연의 데이터베이스로서 위키¹¹⁾ 모두 웹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10) 문서 수량과 사용자 규모는 2021년 2월 25일 기준이다. 문서 수량은 토론 문서, 넘겨주기 문서, 사용자 문서 등을 포함한 위키에 있는 모든 문서 수량을 뜻한다.

정보를 저장하고 지식을 편찬하는 공간이자 그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의 위키를 구성하는 요소들이라는 사실이다. 기술적 차원에서 위키에 대한 이해가 곧 하나의 문화 공간으로서 위키를 이해하는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2) 멀티미디어 활용 플랫폼으로서의 위키

위키는 하이퍼링크(hyperlink)를 통해 위키 내·외부 문서가 연결되게끔 하는 하이퍼텍스트(hypertext) 기능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다. 독자는 위키 페이지 내에 삽입된 하이퍼링크를 클릭해 자신이 원하는 지식의 맥락을 자유롭게 구성하는 비선형적 읽기를 경험할 수 있는데,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위키 페이지를 작성하면서 해당 위키 내·외부로 연결되는 하이퍼링크를 자유롭게 생성해서 배치할 수 있기 때문이다.¹²⁾ 해당 기능은 디지털 환경의 글쓰기를 위한 최적의 플랫폼으로 위키를 자리 잡게 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하이퍼텍스트를 기반으로 하는 위키의 특수한 쓰기와 읽기 방식은 ‘Wiki Wars’라는 독특한 놀이문화 또한 만들어냈다.

‘Wiki Wars’는 위키피디아의 방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놀이로서, 아무 관련이 없는 A와 B 두 가지 정보를 제시하고, A 페이지에서 출발해 오직 위키피디아의 내부 하이퍼링크를 통해서 B 페이지에 먼저 도달하는 사람이 승자가 되는 형식이다. A와 B는 언뜻 보기에 아무 관련이 없는 정보 요소인 것처럼 보이지만 ‘A → (C → D → E → F → G) → B’와 같은 형태로

11) ‘넓은 외연의 데이터베이스로서 위키’라는 표현은, RDB와 같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과 위키가 연동될 수 있다는 기술적 차원의 문제를 거론하는 것과 별개의 차원으로, 위키 자체가 사용자들 사이에서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다루는 플랫폼으로 인지될 수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워드 커닝햄 또한 위키를 두고 “작동 가능한 가장 간단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the simplest online database that could possibly work)”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Leuf, B., & Cunningham, W., *The Wiki way: Quick collaboration on the Web*, Boston: Addison-Wesley, 2001, p. 41.

12) 미디어위키를 기준으로 볼 경우 위키 내에서 다른 위키 문서를 연결하고자 할 때에 연결하고자 하는 문서의 제목(표제어) 양쪽에 대괄호를 두 개씩 입력하고 저장하면 하이퍼링크가 생성된다. (예: [[윤동주]]) 그리고 외부 페이지를 링크로 연결하고자 한다면 해당 외부 url 앞뒤로 대괄호를 입력하면 된다. (예: [http://dh.aks.ac.kr/imk/])



〈그림 1〉 Wiki Wars를 소재로 한 유튜브 영상 화면¹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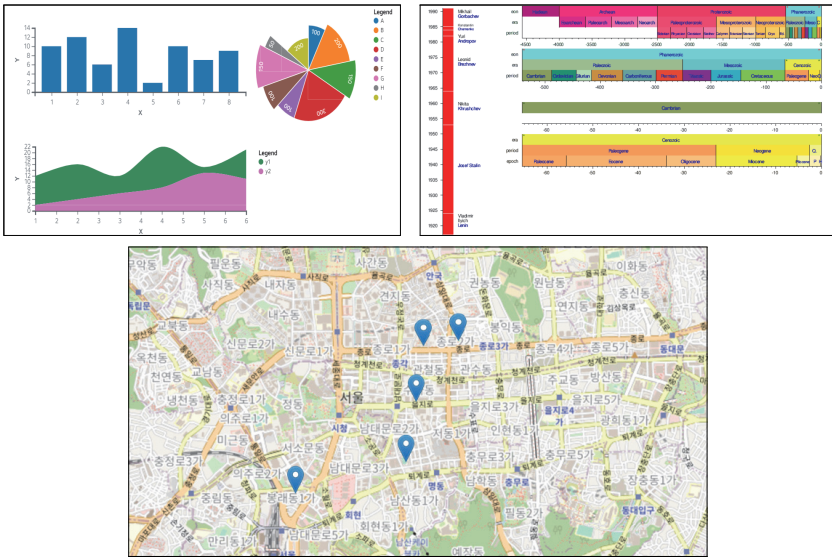
여타 정보를 매개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 양상은 곧 비선형적 형식으로 정보가 조합되고 연결되는 디지털 환경의 특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Wiki Wars’는 하이퍼텍스트 기술로 대표되는 디지털 환경의 경험이 문화적 차원으로 확장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위키에서 제공하는 하이퍼링크 기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사용되는 위키 마크업 언어의 추가 기능으로 ‘분류(Category)’와 ‘틀(Template)’이 있다. ‘분류’는 특정 맥락의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위키 페이지에 인덱싱을 하는 기능으로,¹⁴⁾ 해당 분류와 관련된 문서의 집합을 자동으로 생성한다. 위키 문서에 적어도 하나 이상의 ‘분류’를 명기함으로써 해당 문서의 맥락이 무엇인지 정리할 수 있다. ‘틀’은 위키 페이지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정보를 모아 하나의 고정된 형식으로 만드는 기능이다. 특정 페이지에 해당 틀을 삽입함으로써 간편하게 정보를 작성할 수 있고 일관된 형식으로 페이지를 관리할 수 있다.¹⁵⁾

13) WikiWars Championship. url: <https://youtu.be/FdJN2iK0BS0>

14) 분류(Category)는 위키 문서에 [[분류:분류명]]을 기입하여 생성하는데, 분류명에는 문서를 체계화할 수 있는 주제를 입력한다. “특수:분류” 페이지에서 전체 분류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분류 내에도 분류를 삽입하여 상하위분류 체계를 생성할 수 있다. 이는 “특수:분류트리”에서 확인 가능하다. (미디어위키 기준)

위키가 제공하는 하이퍼링크를 단순히 텍스트 연결에만 한정된 기능으로 보아서는 곤란하다. 위키는 텍스트 외에 여러 미디어 형식의 자료를 대상으로 하이퍼링크 기능을 지원함으로써, 멀티미디어 환경에서 정보와 지식을 효과적으로 조직하고 표현할 수 있게끔 해준다. 예컨대 외부의 멀티미디어 자원을 위키 페이지에 연결하고자 할 경우 간단한 HTML 태그를 사용해 삽입(embedding)할 수 있다. 또한 “파일 올리기” 기능을 통해 위키에 직접 업로드한 멀티미디어 자료는 업로드 시 지정한 파일 이름을 표제어로 한 개별 위키 페이지로 생성된다. 해당 자료의 명칭을 특정 위키 페이지에서 내부링크로 연결하면 해당 파일을 브라우저 화면상에 직접 출력할 수 있다.¹⁶⁾



〈그림 2〉 미디어위키에서 활용되는 대표적인 확장 기능(extension) 예시
좌측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Graph, EasyTimeline, MultiMaps

15) 틀(Template)은 틀을 정의하는 위키 문서를 먼저 작성한 후 틀을 삽입하고자 하는 위키 문서에 {{틀:틀제목}}을 삽입하여 출력 가능하다. (미디어위키 기준)

16) 위키 문서에 [[파일:파일이름.확장자]]를 입력하여 저장하면 업로드한 파일을 위키 문서에 직접 출력할 수 있다. [[미디어:파일이름.확장자]]를 입력하면 파일이 직접 출력되지 않고 파일의 위키 표제어만 출력된다. (미디어위키 기준)

또한 위키 엔진이 제공하는 확장 기능(extension)을 설치해서 각 기능별 입력 규칙¹⁷⁾에 맞춰 데이터 값을 입력하면 위키 페이지 내에서 다양한 멀티 미디어 자료를 출력하는 것이 가능해진다.¹⁸⁾

예를 들어 ‘MultiMaps’는 미디어위키의 확장 기능 중 지리 정보를 시각화 하기 위해 활용되는 대표적 기능이다.¹⁹⁾ 해당 확장 기능은 구글맵(Google maps)과 오픈스트리트맵(OpenStreetMap) 등의 지도를 위키 페이지에 출력 하게끔 해준다. 위경도 좌표를 입력하여 지도 위에 마커를 출력할 수 있으며, 해당 마커에 하이퍼링크를 생성하여 위키 내부 및 외부 페이지로 연결할 수 있다. ‘Graph’는 수치 정보를 시각화할 수 있는 확장 기능으로, 막대 및 누적 영역형 그래프, 원형 차트 등의 시각적 미디어를 위키 페이지 상에 출력하게끔 해준다.²⁰⁾ 그리고 시간 정보를 간단한 형식의 타임라인으로 시각화해주는 확장 기능으로 ‘EasyTimeline’을 거론할 수 있다.²¹⁾ 타임라인에도 내·외부 링크를 입력하여 구체적인 정보를 연결하는 것이 가능하다.

위키의 마크업 언어는 비교적 단순한 구조이지만 제한 없이 연결 가능한 하이퍼링크와 다채로운 확장 기능(extension)을 바탕으로, 정보를 정리하고 지식을 서술하는 데 있어서 여러 미디어를 복합적으로 활용하고 그것을 입체적으로 연결할 수 있다. 아날로그 글쓰기와는 차별되는 디지털 글쓰기만의 고유한 의미가 있다면, 위키가 지닌 확장 가능한 정보 기술(記述, writing) 양식을 거론할 수 있을 것이다.

3) 데이터 편찬 플랫폼으로서의 위키

위키는 엔진에 따라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하는 방식이 다르다. 예컨대

17) 특수 위키 마크업 문법인 파서 함수({{}})를 사용해 삽입한다. (미디어위키 기준)

18) 위키 엔진별로 확장 기능이 상이하며, 위키 서버 접근 권한이 있는 사용자만이 확장 기능을 설치할 수 있다. 설치된 확장 기능은 위키 내 “특수:버전”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디어위키 기준)

19) Extension:MultiMaps url: <https://www.mediawiki.org/wiki/Extension:MultiMaps>

20) Extension:Graph url: <https://www.mediawiki.org/wiki/Extension:Graph/ko>

21) Extension:EasyTimeline url: <https://www.mediawiki.org/wiki/Extension:EasyTimel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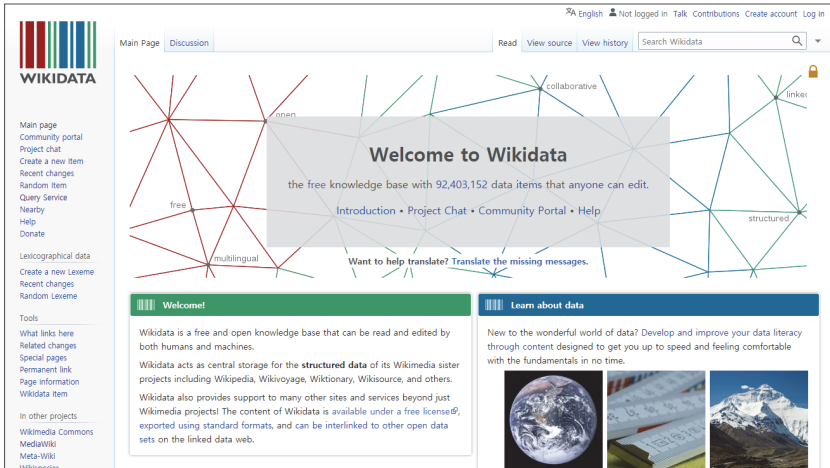
미디어위키(MediaWiki)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로 정보를 저장하지만, 모니 위키와 모인위키(MoinWiki), 도쿠위키(DokuWiki) 등은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지 않고 텍스트 파일로 데이터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후자의 경우, 데이터의 규모가 크거나 복잡하지 않으며 주로 플레인 텍스트(plain text)를 다루기에 적합하다. 반면 위키를 매개로 다루고자 하는 데이터의 규모가 크고 복잡하다면 미디어위키로 대표되는 데이터베이스 연동 시스템을 갖춘 엔진 활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키 엔진에 따라 백엔드(back-end) 차원에서 데이터를 다루고 저장하는 방식에 있어 차이가 있으나, 실제 위키를 사용하는 입장에 설 경우 대부분의 위키가 웹 브라우저 상에서 정보를 생성·수정·관리할 수 있는 UI를 제공한다. 점에서 위키는 그 자체로 ‘넓은 외연의 데이터베이스’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디어위키는 백엔드에서 연동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지 않고도 웹브라우저 상에서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위키 페이지에 기록된 정보를 일괄 수정할 수 있는 “문자열 찾아 바꾸기”²²⁾ 기능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상에서 복잡한 질의어(Query)를 통해 직접 데이터를 수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여준다. 위키 페이지에 입력된 정보를 XML 포맷의 데이터로 변환하여 출력하는 “문서 내보내기”와 그 반대로 외부의 XML 포맷 데이터를 불러와 위키 페이지로 변환해주는 “문서 가져오기” 또한 데이터를 다룬다는 맥락에서 유사한 기능에 해당한다.²³⁾

웹사이트로서 위키에 구축된 수많은 페이지는, 하나하나가 개별 데이터로 처리 가능하다. 이러한 가능성에 착안한다면, 상대적으로 거대한 규모의 정보를 지닌 위키피디아와 같은 사례는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로만 활용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정교한 수준에서 데이터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다. 실제 위키 소프트웨어로 구현된 웹사이트의 데이터를 균질한 체계로 관리·처리할 수 있도록 고안한 플랫폼이 바로 위키데이터(Wikidata)이다.

22) “특수:찾아바꾸기” 페이지에서 문자열을 수정할 수 있다.

23) “특수:내보내기”와 “특수:가져오기” 페이지에서 해당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그림 3〉 위키데이터(Wikidata) 웹사이트 메인 화면²⁴⁾

위키데이터(Wikidata)는 위키피디어, 위키낱말사전, 위키문헌 등 위키미디어 프로젝트²⁵⁾에서 공동으로 사용되는 정보를 시맨틱 데이터(Semantic Data)²⁶⁾로 가공하여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 플랫폼이다. 위키데이터는 개발 단계에서 구글(Google)로부터 130만 유로의 지원금과 데이터 분석 자료를 기증받았는데, 그 중 하나가 구글 지식그래프(Knowledge Graph)이다.²⁷⁾ 해당 지식그래프는 2019년 이후 구글 검색 플랫폼에서 ‘지식패널(Knowledge Panel)’이라는 명칭으로 서비스되고 있는 것으로, 특정 검색어에 대한 기본적

24) Wikidata url: <https://www.wikidata.org/>

25) 위키미디어 재단이 관리하는 프로젝트로 위키피디어, 위키낱말사전, 위키미디어, 위키책, 위키뉴스, 위키인용집, 위키문헌, 위키배움터, 위키여행, 위키생물종, 위키데이터 등이 있다.

26) 시맨틱 데이터(Semantic Data)는 시맨틱 웹 환경을 전제로 가공되거나 다루어지는 데이터를 가리키는 표현이다. 시맨틱 웹이란 웹상에 무질서하게 흩어져있는 문서(웹페이지)를 컴퓨터가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는 형태의 데이터로 재편한 이상적인 웹 개념으로서, W3C에서 규정한 표준적 메타데이터 기술 체계인 RDF(Resource Description Framework)에 기초해 웹상의 자원을 트리플(Tripe, S-V-O) 구조로 정리하고 개별 객체에 고유한 식별자(URI, URL)를 부여함으로써 모든 자원 사이에 의미적 관계가 드러나게끔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웹 전체를 거대한 데이터베이스로 바라볼 경우 시맨틱 웹이 현실화된 공간은 곧 의미적 관계가 부여된 거대한 데이터 관계망이라 할 수 있다. RDF, OWL, XML과 같은 시맨틱 웹 유관 기술을 데이터 모델링 과정에 적용하는 것은, 정보와 지식을 더욱 정교하게 다룰 수 있는 환경으로서 미래의 웹을 현실화해 나가고자 하는 태도와도 관련이 있다.

27) 진주완·정철·류철,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사계절, 2018, 71~72쪽.

인 정보를 검색 결과 화면 우측에 정보 상자의 형태로 출력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위키미디어 프로젝트에 속하는 위키 웹사이트에서는 필요에 따라 ‘틀(Template)’ 기능을 이용해 위키데이터에 저장된 데이터를 불러와 사용할 수 있다. 예컨대 ‘윤동주’에 대한 정보값을 불러오려면 위키데이터 상의 윤동주 식별자와 속성(property)을 조합해 위키 코드를 입력해야 한다. 아래는 위키데이터에 정리된 ‘윤동주’ 데이터²⁸⁾에서 원하는 예제의 결과값을 호출하는 위키 코드이다.

〈표 3〉 ‘윤동주’ 위키데이터의 위키 코드 예제와 결과값

예제	위키 코드	결과값
직업	{{#statements:occupation from=Q625089}}	poet
사망일자	{{#statements:date of birth from=Q625089}}	30 December 1917
교육기관	{{#statements:educated at from=Q625089}}	Yonsei University, Rikkyo University, Doshisha University
공식 홈페이지	{{#statements:official website from=Q625089}}	http://yoondongju.yonsei.ac.kr/

위키데이터에서 ‘윤동주’ 데이터가 수정될 경우 위키 코드를 통해 불러온 결과값도 자동으로 변경된다. 즉 위키데이터는 위키미디어 프로젝트에 속하는 모든 위키 웹사이트를 매개하는 일종의 데이터 허브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위키데이터는 RDF 형식으로 저장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위키데이터 쿼리 서비스를 제공한다.²⁹⁾ 사용자는 SPARQL³⁰⁾을 통해 원하는 맥락의 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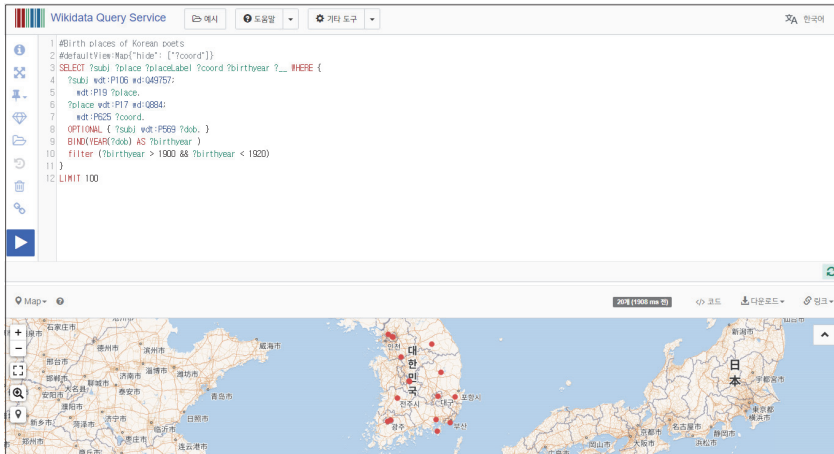
28) 위키데이터 Yun Dong-ju (Q625089) url: <https://www.wikidata.org/wiki/Q625089>

29) 위키데이터 쿼리 서비스/사용자 매뉴얼 url:

https://www.mediawiki.org/wiki/Wikidata_Query_Service/User_Manual/ko

30) Simple Protocol and RDF Query Language의 약자로, RDF 형식의 데이터베이스를 위한 시맨틱 질의어를 말한다.

이터를 자유롭게 탐색할 수 있으며 표, 지도, 그래프, 차트 등의 여러 시각적 결과물로 데이터 결과값을 출력할 수 있다. 예컨대 아래는 위키데이터 쿼리 서비스를 이용해 1900~1920년 사이에 태어난 대한민국 국적 시인의 출생지를 조회한 결과값을 전자지도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4〉 1900~1920년 사이에 태어난 대한민국 국적 시인 출생지 조회 결과³¹⁾

위키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위키미디어 프로젝트에 속하는 위키웹사이트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여타 사용자들이 위키를 통해 구현한 데이터 또한 위키데이터 커뮤니티와 논의를 거쳐 절차상 명문화된 규격을 갖출 경우 ‘데이터 기증(Data donation)’의 형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이나 단체가 위키를 통해 자율적으로 구축한 데이터를 위키데이터에 기증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그 절차는 매우 까다롭다.³²⁾ 위키피디어를 통해 대규모 정보가 구축되고, 그것을 다시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모색 끝에 위키데이터가 구현된 사례는, 웹 환경에서 집단지성이 어떻게 구성되고 기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주목할 만하다.

31) 위키데이터 쿼리 서비스 url: <https://query.wikidata.org/>

32) Wikidata:Data donation url: https://www.wikidata.org/wiki/Wikidata:Data_donation

3. 집단과 지성 그리고 공유와 협업

1) 웹 환경에서의 집단지성의 의미와 위키 기반의 지식 플랫폼

집단지성(Collective Intelligence)에서의 ‘집단’은 ‘군집(crowding)’이 아니라 ‘공동(joint)’의 의미이다. 이 개념은 단순히 여럿이 모이는 양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무언가를 도모하는 행위로서 ‘집단(the Collective)’의 가치를 강조하는 표현이다. 공동으로 무언가를 도모한다는 것은 다수의 주체가 해당 행위에 동참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 때문에 때로는 참여하는 주체가 얼마나 다수인가에 주목하는 규모의 관점이 ‘집단’의 의미를 규정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예컨대 웹 환경에서 불특정 다수가 생산하는 ‘빅데이터(Bigdata)’와 같은 결과물은 양적 차원에서 집단의 의미를 더욱 강조하는 촉매가 된다. 다수에 의해 산출된 결과물이 어느 정도의 질적 수준을 성취하였는가에 대한 객관적 판단과 별개로, 그와 같은 형식의 결과물이 의사결정을 위한 새로운 매개가 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규모’의 관점은 ‘집단’을 정의하는 데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많은 사람이 참여할수록 집단으로서의 규모가 커지고, 규모가 커질수록 다룰 수 있는 지식의 범위가 넓어진다고 할 때, 기능이나 효율의 측면에서 그 결과적 가치가 증대할 수 있다는 관점은 일견 자연스러워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집단지성’이라는 표현에서 ‘집단’의 의미를 규모라는 측면에 한정하여 이해한다면, 그것은 ‘집단’의 내포를 충분히 이해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규모의 이면에서 그것이 충분한 규모를 갖출 수 있도록 만드는 시스템이 존재하며, 그 시스템의 규칙과 동역학이야말로 집단적 지성활동을 가능하도록 하는 중심 뼈대로서 의미를 가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최근 20주년을 맞이한 위키피디아의 사례는 많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2021년 2월 현재 위키피디아에서 유통되고 있는 표제어 항목은 5천500만 개 이상이며, 그 가운데 한국어 표제 항목만 53만 개 이상으로 추산된다. 웹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전파하고, 특정 분야의 지식을

언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위키피디아는 웹 기반의 백과사전이라는 형식을 뛰어넘어 하나의 디지털 문화공간으로 그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다. 위키는 ‘백과사전(encyclopedia)’이라는 표어를 내걸고 시작하였지만 이제는 디지털 환경의 특수성을 바탕으로, 여러 지식 프로젝트를 유인하고 협업을 추동하는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으로 진화하였다.

위키피디아의 성공 요인 중 하나는 ‘자유’와 ‘제한’이 적절하게 조율된 지식 편찬 시스템에서 찾을 수 있다. 위키 페이지는 누구나 작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유가 부여된 시스템이지만, 다른 한 편 위키피디아는 일정한 규칙에 따라 운영이 되며 동시에 작성 후 게시된 페이지의 지식은 누구나 검증이 가능하며 특정한 경우에는 폐기 또한 가능하다. 예컨대 지식 편찬에 참여하는 사용자가 유념해야하는 최소한의 기준인 위키피디아의 다섯 원칙(five pillars)은 다음과 같다.



위키백과는 백과사전입니다.
위키백과에 올라오는 항목은 다른 백과사전이나 전문 사전, 혹은 연감 등에 실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는 단순히 정보를 쌓아놓는 수집품은 아닙니다. 다른 책이나 자료의 내용 전체나 신문 기사, 선전이나 광고를 올릴 수는 없습니다. 개인의 의견이나 경험, 주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위키백과는 ‘중립적 시각’에서 바라봅니다.
어느 한 쪽으로 편향되지 않은 글을 만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위키백과의 글에는 다수 의견과 고려할 가치가 있는 소수 의견이 편견 없이 공평하게 반영되어야 합니다.



위키백과의 글은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위키백과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CC-BY-SA) 3.0에 따라 자유롭게 배포할 수 있고, 누구나 고칠 수 있는 자유 콘텐츠입니다. 따라서, 배타적 저작권이 있는 문서를 무단으로 가져오거나, CC-BY-SA 3.0과 호환되지 않는 문서를 위키백과에 올릴 수는 없습니다.



위키백과에서는 다른 사용자를 존중합니다.
비록 의견에 동의하지는 않더라도, 위키백과에 참여하는 다른 사람을 존중해 주세요. 예의를 갖추주세요. 다른 사용자들 공격하거나, 짜증이 비난하지 말아 주세요. 편집이 치열할수록 더 냉정해지세요. 필요 없는 편집 전쟁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어 위키백과에는 손보고 의견을 나눠야 할 532,761개의 글이 있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환영하고 포용합시다.



위키백과에는 엄격한 규칙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설명하는 다섯 원칙 말고 다른 규칙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감하게 문서의 내용을 고치고, 옮기고, 바꾸셔도 됩니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문서의 이전 판은 모두 보존되어 있으므로 실수로 망가뜨릴까 봐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쓴 내용 역시 영원히 남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림 5〉 위키피디아의 다섯 원칙(Five Pillars) 페이지 화면³³⁾

33) * 한국어 위키피디아 url: https://ko.wikipedia.org/wiki/위키백과:다섯_원칙 * 영문 위키피디아 url: https://en.wikipedia.org/wiki/Wikipedia:Five_pillars

마지막 원칙 ‘위키피디아에는 엄격한 규칙이 없다(Wikipedia has no firm rules)’에 유의한다면, 상기 네 가지 원칙 외에는 위키 참여자에게 상당한 자유가 부여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네 가지 원칙은 형식적인 언명이 아니라 실제 지식을 편찬하는 구체적 과정에서 ‘엄격한’ 규칙으로 작동한다. 예컨대 단순한 수집적 성격의 정보, 다른 문헌에서 언급된 내용, 선전이나 광고 성격의 표현, 개인의 의견이나 경험과 주장(첫 번째 원칙)과 중립적이지 않고 편향된 서술(두 번째 원칙), 배타적 저작권이 있는 문서(세 번째 원칙),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표현이나 토론의 태도(네 번째 원칙) 등은 다수에 의한 검증을 비롯한 규약화된 절차를 통해, 수정되거나 최종 결과물에 반영되지 못한다.

겉으로 드러나는 양상에만 주목할 경우, 위키피디아는 누구나 지식의 편찬에 참여하고 작업의 효율을 마련하기 위해 자유와 효율을 지향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앞서 ‘다섯 원칙’에서도 볼 수 있듯, 위키피디아는 모든 지식이 최소한의 형식과 검증을 거친 후에야 유통할 수 있는 규약을 구축하여 “성찰성”³⁴⁾을 시스템에 내재화한다. 토론과 협동의 과정에서 지식생산에 참여하는 집단은 수동적 객체(object)로서 단순한 군집(crowding)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 주체(subject)로서 공동(joint)으로 스스로를 주체화하도록 한다. 위키 시스템은 지식 편찬과 검증에 참여하는 각 사용자가 평면적이고 익명(anonymous)적인 존재에서 벗어나 시공간을 입체적으로 점유하는 “교환 불가능하고 대체 불가능한”³⁵⁾ 고유한 개인(the Singular)으로 활동하도록 한다. 위키 페이지를 작성하는 개별 사용자는 지식의 창안자이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이 작성한 위키 페이지를 검토하는 지식의 검증자라고 할 수 있다.

사용자의 고유성에 대한 존중은 위키의 시스템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위키 페이지 우측 상단에 위치한 ‘역사 보기(view history)’는 기록물로서 해당 페이지의 변천을 누구든 일괄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동시에, 참여자가 페이지 내용을 작성하거나

34) 올리히 벡, 홍성태 역, 『위협사회 - 새로운 근대(성)를 향하여』, 새물결, 1997, 354쪽.

35) 질 들뢰즈, 김상환 역, 『차이와 반복』, 민음사, 2004, 26쪽.

검토한 시간 정보와 공간 정보(IP주소)를 기록함으로써 참여자와 참여행위의 고유성을 극대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해당 기록(log)은 ‘내가 아닌 누구라도’가 아니라 ‘그 누구도 아닌 내가’ 참여하는 지식 편찬의 경험으로 ‘모두가 함께 하되 그 가운데 내가 훼손되지 않는’ 고유한 지식 활동의 의미를 부여한다. 지식 생산자의 고유성을 존중하는 위키의 지식활동은 완성된 결과물을 출판하는 아날로그 환경에서는 불가능한 것으로, 함께 공동의 지식을 완성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이라는 조건에서 가능한 것이다.

The screenshot shows the 'History' (역사) tab of the Korean Wikipedia page for '윤동주' (Yundongju). The page displays a list of revisions, including the current one by Hinahallove on March 31, 2021, and previous revisions by TedBot and Hinahallove. The interface includes a sidebar with navigation links and a top navigation bar.

〈그림 6〉 한국어 위키피디아 ‘윤동주’ 페이지의 역사 보기 화면³⁶⁾

위키(wiki) 소프트웨어가 가진 미디어적 특징은 웹에서 여러 사람의 참여를 통한 지식 편찬이 가능하도록 한다. 하지만 위키피디아의 ‘다섯 원칙’에서 보듯 하나의 플랫폼은 각각의 고유한 원칙에 따라서 운용된다. 동일한 위키 소프트웨어로 구축하였더라도 각각의 위키 웹사이트는 서로 다른 규약에 따라서 운영할 수 있다. 위키로 구축된 웹사이트가 각각 다른 성격을 지니는 것은 이 때문이다. 위키 소프트웨어는 ‘공유’와 ‘협업’을 지향한 미디어적 특징을 갖지만, 웹 사이트의 운영 규약에 따라 개별 위키 공간이 수행하는 ‘공

36) 한국어 위키피디아 ‘윤동주’항목 url: <https://ko.wikipedia.org/wiki/윤동주>

유’와 ‘협업’은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시각에서 위키피디아와 나무위키를 비교할 수 있다. 나무위키 또한 명문화된 기본방침을 살펴볼 경우 위키피디아와 마찬가지로 “이용자의 자유와 권리를 평등하게 보장하고 지식과 정보의 공유”를 표방한다.³⁷⁾ 다만 “경직되고 건조한 서술이 아닌 어느 정도 재미도 갖춘 서술을 지향한다”와 같은 명문에서 드러나듯이 나무위키의 지향점 및 규약은 위키피디아와는 조금 다르다. 실제로 나무위키에서 객관적으로 전달해야 할 사실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고 자극적·편향적으로 기술한 흥미 본위의 페이지로 인해, 사회적 논란이 일어나기도 하였다.³⁸⁾ 나무위키의 규모가 커질수록 그에 대한 비교항목으로 위키피디아에 담긴 정보의 객관성이 강조되는 맥락 또한 그와 무관하지 않다.

위키피디아와 나무위키는 위키 기반의 백과사전적 지식플랫폼으로서 집단 지성을 지향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지식 기술 양상과 그에 대한 사용자들의 평가는 엇갈리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위키피디아 vs 나무위키’와 같은 대결구도를 상정하는 것은 그다지 생산적인 논의를 열어가기 어렵다. 오히려 여러 사람이 함께 지식을 편찬할 수 있게끔 설계된 위키 소프트웨어의 미디어적 형식을 공유하는 위키가, 각 사이트의 규약에 따라 다양한 ‘공유’와 ‘협동’의 스펙트럼을 열어갈 수 있다는 점을 환기하는 것이 보다 생산적일 것이다. 집단지성을 가능케 하는 매개로서 위키 소프트웨어의 속성을 분명히 이해하고 목적과 지향에 맞게 지식 편찬의 영역에서

37) 나무위키 기본방침 url: <https://namu.wiki/w/나무위키:기본방침>

38) 최근 김수아는 나무위키의 젠더 편향 서술을 거론하며 그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나무위키가 비판을 받아 온 점 중 하나는 2015년 이후 한국 사회의 변화를 추동하는 페미니즘 인식론 및 페미니스트 정체성을 표방하는 인터넷 이용자와 충돌해 온 사례들 때문이다. 비단 페미니즘뿐 아니라 “정치적 올바름 Political Correctness”와 관련된 논쟁의 중심에 나무위키가 등장하고 있다. 2016년 강남역 여성 살해 사건, 에스캣 운동, 2018년 예멘 난민 관련 논쟁 등에서 나무위키는 사건의 서술과 평가를 둘러싼 편집 전쟁을 벌였다. 가장 최근의 편집 논쟁은 2019년 파이널 판타지 14 게임과 관련된 논란에서 발생했다. 한 이용자가 인벤 사이트(게임커뮤니티)에 자신이 나무위키 서술자라 주장하면서 ‘메갈과 전쟁’에서 이기겠다는 다짐을 올리면서 발생한 논란이다. 이 외에도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나무위키의 서술은 인종주의와 관련하여 다양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항목별 기여자가 다를 수 있는 특성 때문에 인종차별 항목에서는 중립적 정보를 제시하지만, 메르스나 사스, 최근의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정보에는 발병 국가에 대한 인종차별적 인식을 그대로 노출하는 한계를 보이기도 한다.” 김수아, 『지식의 편향 구조와 혐오: 국내 위키 서비스 ‘여성혐오’ 논란을 중심으로』, 『미디어, 젠더&문화』 35(1),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2020, 14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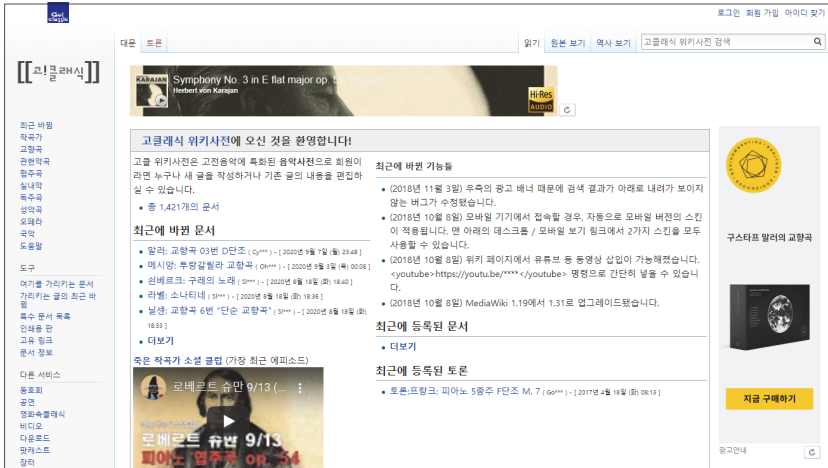
위키를 보다 의미 있게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다.

2) 협업과 공유를 위한 위키 플랫폼과 디지털 인문학의 가능성

위키피디아나 나무위키와 같은 백과사전적 지식 플랫폼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인지, 위키를 다방면의 지식(various knowledge)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유용한 디지털 도구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인상주의적 이해는 위키가 단일 분야의 지식(domain knowledge)을 전문적으로 다루기에도 충분히 매력적인 도구라는 사실을 간과할 위험이 있다. 이미 웹 상에는 특정 도메인에 대한 지식을 정리한 위키가 존재한다. 단일 분야의 지식을 전문적으로 정리한 위키는,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불특정 다수의 아파추어 지식인들이 구축한 위키와 전문 연구자들이 모여 구축한 연구사업 결과물 위키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고클래식 위키사전’은 클래식 음악 동호회 웹사이트 ‘Go!클래식’³⁹⁾의 하위 웹사이트로 ‘고전음악’에 대한 이해가 풍부한 사용자들이 회원 가입을 통해 유관 지식 편찬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플랫폼이다. 이 위키는 고전음악에 대한 작품해설 또는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며, 이를 토대로 ‘고전음악’을 도메인으로 한 전문지식사전을 지향하고 있다. 2021년 2월 현재 약 1,400여 개의 문서가 제공되고 있으며, 기본적인 검색 기능 외에 위키의 ‘분류’ 기능을 활용해 장르별, 작가별 음악을 찾아볼 수 있는 추가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해당 위키는 ‘Go!클래식’ 웹사이트와 연계하여 회원 가입을 진행하고, 로그인을 통해 지식 편찬에 참여할 수 있다.

39) ‘Go!클래식’은 고전음악을 다루는 웹사이트로서 1999년 3월에 론칭되었다. 2000년 6월에 고클래식 동호회를 개설해 꾸준히 운영해옴으로써, 고전음악 애호가들을 대상으로 한 대표적인 국내 음악 웹사이트로 자리하게 되었다. url: <http://www.goclassic.co.kr/>

〈그림 7〉 ‘고클래식 위키사전’의 메인 화면⁴⁰⁾〈그림 8〉 ‘조선왕조실록 전문사전위키’의 메인 화면⁴¹⁾

‘조선왕조실록 전문사전위키’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연구사업 결과물⁴²⁾로서 조선시대 역사를 전공한 전문 연구자들이 참여한 디지털 기반의 역사용

40) 고클래식 위키사전 url: <http://ko.goclassic.co.kr/wiki/>

41) 조선왕조실록 전문사전위키 url: <http://dh.aks.ac.kr/sillokwiki/>

42) ‘조선왕조실록 전문사전위키’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조선왕조실록 전문사전 편찬(Encyclopedia for Sillok Text)’ 연구 과제(10년, 2007.11~2017.11)를 통해 구현된 연구 결과물이다.

두 위키의 차이는 시스템 설계의 측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고클래식 위키사전’과 달리 ‘조선왕조실록 전문사전위키’는 편찬된 역사 지식을 데이터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에서 데이터 설계 내용을 본격적으로 반영한 위키이다. 단순히 연구결과물을 공개하는 웹사이트로서만 위키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SQL과 연계된 데이터베이스로서 위키의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개별 페이지에 기록된 정보를 모두 XML 형식의 데이터로 변환하여 공공데이터포털⁴³⁾에서 공유하였다. 해당 XML 데이터의 규모는 2021년 현재 공공데이터 포털에 공개된 버전(2020년 9월 29일 버전)에 따를 경우 개별 항목을 기준으로 약 11,600여 건에 이른다. 『조선왕조실록』에서 언급된 용어를 대상으로 데이터 기반의 연구를 시도하려는 연구자들에게 있어 해당 데이터는 유용한 기초 자료로 기능할 수 있다.

다수의 인문학 연구자들이 공동으로 참여해 인문학적 지식을 텍스트로 기술하고 그것을 웹 표준의 데이터로 가공해 개방적으로 공유하는 방식의 위키 플랫폼 활용 사례는 연구 과정과 결과에 있어 온전한 협업과 공유를 지향하는 디지털 인문학의 근본적 문제의식과도 일맥상통한다.⁴⁴⁾ 아날로그 환경의 ‘논문 쓰기’가 지식(knowledge) 공유를 표방한다면, 디지털 환경의 ‘정보 기술(記述)’은 데이터(data) 공유를 목적으로 한다. 위키는 데이터 설계 및 편찬 과정에 참여하고 결과물을 공유하는 효과적인 디지털 플랫폼으로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위키는 다방면의 지식(various knowledge)이 아니라 세부 전공 분야의 전문성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단일 분야의 지식(domain knowledge)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인문학 연구자에게 유용한 연구 플랫폼이다.

43) 조선왕조실록 전문사전 데이터 url: <https://www.data.go.kr/data/15007877/fileData.do>

44) ‘협업’과 ‘공유’로 표방되는 디지털 인문학의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류인태, 『디지털 인문학은 인문학이다』, 『인문논총』 77(3),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20, 394~400쪽 참조.

4. 인문학 연구·교육 플랫폼으로서의 위키

디지털 환경의 인문학 글쓰기는 세 가지 리터러시(literacy)의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디지털 리터러시’, ‘미디어 리터러시’, ‘데이터 리터러시’가 그것이다.

‘디지털 리터러시’는 아날로그 환경과 다른 디지털 환경에서 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발생하는 이해와 표현의 양식을 가리킨다. 인터넷과 웹 기반의 하이퍼텍스트 미디어는 글쓰기에 대한 관념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시공간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운 비선형적 형식의 기술(記述)이 디지털 환경에서 가능해짐에 따라, 혼자가 아니라 다수가 참여하는 공동의 글쓰기가 보편화되었다. 아날로그 환경과는 다른 디지털 환경에서 통용되는 특수한 이해와 표현의 양식이 하나의 리터러시로서 자리하게 된 것이다.

‘미디어 리터러시’는 미디어에 초점을 둔 이해와 표현 양식을 지칭하는 표현이다. 예컨대 미디어 리터러시의 관점에 입각해 위키를 바라볼 경우, 위키 기반의 글쓰기는 글쓰기의 미디어적 확장을 가져올 수 있다. 디지털 환경에서 수행하는 인문학적 이해와 표현은 글쓰기(writing)라는 단일 미디어의 형식에 한정되지 않는다. 디지털 환경의 인문학 글쓰기는 이미지, 동영상 등의 멀티미디어 자원뿐만 아니라, 맵, 타임라인, 그래프 등 다양한 시각화 자원을 활용하면서 미디어의 변용과 확장(extension)을 도모할 수 있다. 사용자가 자유롭게 미디어를 선택하고 편집하고 종합할 수 있는 글쓰기를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하겠다.

‘데이터 리터러시’는 컴퓨터가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는 요소로서 데이터(data)를 다루는 차원에서의 이해와 표현 양식을 의미한다. 예컨대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공유하고 표현하기 위한 모델링 작업으로서 온톨로지(Ontology)를 적용해서 자료를 정리해 나가는 것, 데이터베이스(RDB)를 활용한 데이터 저장 및 관리 방식을 염두에 두고 데이터를 편찬해 나가는 것, XML과 같은 웹 표준 데이터 포맷을 전제로 특정한 맥락의 Scheme를 설계해서 그에 따라 내용을 서술해 나가는 것 등 데이터를 다루는 관점에서 깊어 불만한 글쓰기

의 독특한 지점들 또한 적지 않다.

‘인문지식 편찬 및 공유’라는 목적 하에 위키를 활용해 얻을 수 있는 이해와 표현의 가능성은 이처럼 매우 폭넓다. 현재까지 수행된 인문학 연구 및 교육에서 위키 활용은 ‘공유’와 ‘협업’으로 표방되는 디지털 인문학의 문제의식을 반영하는 동시에, 위의 세 가지 리터러시와 관련한 맥락에서 이루어져 왔다. 이번 장에서는 국내에서 이루어진 인문학 연구 및 교육에서의 위키 활용 사례를 ‘연구(research)’와 ‘교육(education)’ 두 방면으로 나누어 검토하고, 그 의미를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1) 인문학 연구 데이터 편찬 플랫폼으로서의 위키

(1) 텍스트 데이터 편찬 플랫폼으로서의 위키 활용

위키가 지닌 하이퍼링크 기능은 텍스트 자료를 정리하고, 텍스트 가운데 발견될 수 있는 여러 유용한 정보를 분류·취합하는 데 효과적인 도구이다. 텍스트를 수집 및 정리하고 텍스트 안에 담긴 여러 내용을 분석해 그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 인문학 연구의 핵심임을 고려할 때, 디지털 리터러시에 기반을 둔 텍스트 데이터베이스 편찬 역시 인문학 연구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다. 더욱이 여러 사용자가 동시에 단일 문서(페이지)를 편집하는 것이 위키의 장점이기에, 다수의 연구자가 다종다양한 텍스트 자료를 함께 정리하고 분석하는 공동 연구의 경우 위키의 활용 가치는 더욱 커진다. 위키를 이용해 다량의 텍스트 자료를 디지털 환경에서 정리한 인문학 연구의 대표적 사례로 <수신사 및 조사시찰단 자료 아카이브>와 <내한선교사편지 디지털 아카이브>를 거론할 수 있다.

<수신사 및 조사시찰단 자료 아카이브>는 1876년부터 1885년까지 약 10여 년에 걸쳐 일본에 파견된 수신사 및 조사시찰단 관련 자료 80여종을 번역하고 그로부터 추출한 원문, 번역문, 해제, 주석 등의 정보를 위키 기반의 웹사이트로 구현한 결과물이다. 이 아카이브는 80여 종의 텍스트 자료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추출한 260여 명의 인물, 250여 건의 공간, 100여 건의 단체,

400여 건의 문헌, 130여 건의 물품, 200여 건의 개념 등 여러 문맥요소 (Contextual Element)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수신사’ 및 ‘조사시찰단’과 관련 된 전문지식사전을 구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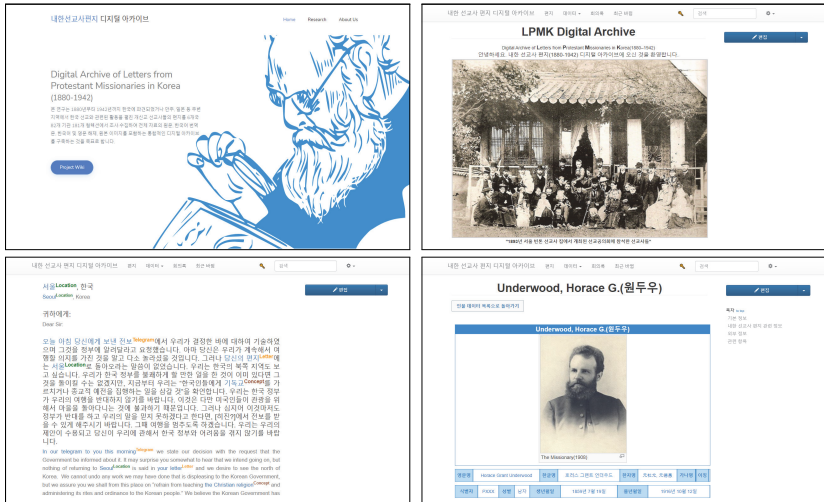


〈그림 10〉 수신사 및 조사시찰단 자료 아카이브 위키⁴⁵⁾

수신사 및 조사시찰단 자료 위키는 자료 수집에서 데이터 편찬에 이르는 모든 연구과정을 실제 진행한 작업 공간이라는 측면에서 시사점을 갖는다. 다수의 연구자가 디지털 환경에서 다종다양한 성격의 자료를 공동으로 취합·번역·분석·연구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위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기존의 공동 연구가 명목상으로는 ‘공동 연구’를 표방하지만 대부분은 개인 연구 결과물을 합산하는 정도에 그쳤던 상황을 고려한다면, 수신사 및 조사시찰단 자료 위키는 그로부터 한 걸음 더 나아간 명실상부한 공동 연구의 토대로 기능했다고 하겠다.

45) 〈수신사 및 조사시찰단 자료 아카이브〉는 2015년 한국연구재단 토대기초연구지원 사업으로 선정되어 3년간(2015.09.01.~2018.08.31.) 이루어진 〈수신사 및 조사시찰단 자료 DB 구축〉연구의 결과물이다. 2021년 2월 현재 위키는 데이터 보관 및 2차 연구 기폭에 진행되고 있어 비공개 상태에 있으나, ‘기초학문자료센터’의 ‘토대연구DB’에 접속할 경우 연구결과물DB가 제공되고 있어 위키에 구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위키 url: <http://dh.aks.ac.kr/susinsa/> 기초학문자료센터 url: <https://www.krm.or.kr/>

〈내한선교사편지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연구 역시 〈수신사 및 조사사찰 단 자료 아카이브〉 구축 연구와 유사하게 다량의 텍스트 자료를 수집·정리·분석하는 과정에서 위키 기반의 온라인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최근의 사례이다.



〈그림 11〉 내한선교사편지 디지털 아카이브 위키⁴⁶⁾

이 연구는 1880년부터 1942년까지 한국에 파견되었거나 만주, 일본 등 주변 지역에서 한국과 관련된 활동을 펼친 개신교 선교사들의 편지를 조사·수집하여 전체 자료의 원문, 번역문, 해제, 원본 이미지를 포함하는 통합적인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까지 조사한 바에 의하면 6개국 약 80여 개 기관 180여 개 컬렉션에 분산 소장되어 있는 다량의 편지 자료를 기초 대상으로 삼아, 온톨로지(XML Scheme 포함)를 설계하고

46) 〈내한선교사편지 디지털 아카이브〉는 2020년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소지원 사업으로 선정되어 최소 3년, 최대 6년간(2020.09.~2026.08.) 진행될 예정인 〈내한 선교사 편지(1880~1942)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연구의 작업 플랫폼이자 동시에 결과물(계획)이라 할 수 있다. 2021년 2월 현재 해당 위키는 연구 진행 중인 상황이기에 비공개 상태에 있으며, 연구가 종료되면 외부에 공개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위키 url: <http://dh.aks.ac.kr/~missionary/index.html>

그에 따라 텍스트 및 여러 문맥요소 데이터를 편찬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2) 멀티미디어 데이터 아카이브로서의 위키 활용

〈수신사 및 조사시찰단 자료 아카이브〉와 〈내한선교사편지 디지털 아카이브〉가 텍스트 데이터를 편찬하기 위한 목적에서 위키를 활용한 사례라면, 〈서삼릉 태실 및 분묘 아카이브〉는 텍스트가 아닌 공간에 대한 정보를 멀티미디어적으로 접근하여 위키 기반의 웹사이트로 편찬한 사례에 해당한다. 앞서의 두 사례가 ‘텍스트’라는 단일 미디어를 다룬 것임에 비해, 이 사례는 이미지와 동영상과 그래프와 전자지도 등 다양한 형식의 미디어를 활용하였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하겠다.



〈그림 12〉 서삼릉 태실 및 분묘 아카이브 위키47)

해당 연구는 고양시 서삼릉에 소재한 54기 태실과 45기 분묘를 기초 대상

47) 〈서삼릉 태실 및 분묘 아카이브〉는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주관 용역으로 진행된 〈고양 서삼릉 내 묘역 및 태실 역사성 회복 연구〉 사업의 결과물로서, 2019년 8월부터 12월까지 약 5개월간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을 중심으로 구성된 연구팀에 의해 편찬되었다.

위키 url: <http://dh.aks.ac.kr/seosamneung/>

으로 삼아, 초안지(초장지)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문헌 자료를 수집·정리하고 그로부터 해당 현장으로 추정되는 곳을 답사하여 스틸 사진과 파노라마 촬영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형식의 연구 결과물을 위키 기반의 멀티미디어 자원으로 편찬한 사례이다. 앞서의 두 연구 사례와 마찬가지로 이 연구 또한 연구 과정에서부터 위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하겠다.

위키는 하이퍼텍스트 기반의 기능으로 텍스트 자료를 정리하는 데 유용할 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지원되는 확장(extension) 기능과 임베딩(embedding) 기술을 통해 이미지, 음성, 동영상 등을 포함해 그래프와 전자지도 등 각종 미디어 자원을 종합적으로 담아내는 데 있어서도 효과적이다. <서삼릉 태실 및 분묘 아카이브>는 텍스트 자료가 아닌 멀티미디어 자료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연구에서도 위키를 활용하여 아카이브를 편찬하고 그 의미를 종합적으로 탐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다.

(3) 데이터 시각화 구현 기초 자원으로서의 위키 활용

앞서 세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위키는 최종적인 연구결과물을 제공하는 웹사이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연구자 다수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연구 과정에서부터 적극 활용할 수 있다. 위키를 연구에 활용할 경우 ‘개인’이 아닌 ‘다수’의 연구자들이 ‘결과’가 아닌 ‘과정’에 집중하면서 인문학 연구를 공동의 작업으로 새롭게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그리고 공동의 작업을 통해 산출된 결과물로서의 데이터는 추후 그것을 활용한 2차 연구 결과물로 확장할 수도 있다. 다만 위키를 통해 정리하는 정보를 연구 데이터로 본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작업 과정에서부터 데이터 리터러시의 이해를 적용해야 한다.

예컨대 ‘조선시대 표류노드 시각망 연구’와 ‘데이터로 다시 읽는 조선시대 양반의 일상: 『지암일기』 디지털 아카이빙 연구’는 여러 연구자가 연구 과정에서 공동으로 데이터를 편찬하기 위한 매개로서 위키를 활용한 사례이자 동시에 해당 데이터를 토대로 시각화 결과물까지 구현한 대표적인 연구라 할 수 있다.

〈그림 13〉 조선시대 표류 노드 시각망 위키⁴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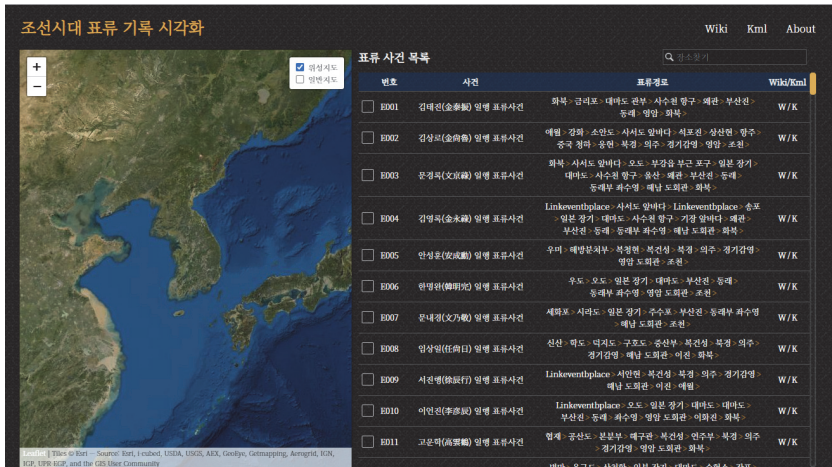
〈조선시대 표류노드 시각망 위키〉는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변례집요(邊例集要)』, 『표인영래등록(漂人領來騰錄)』, 『제주계록(濟州啓略)』, 『각사등록(各司謄錄)』 등의 관찬 사료와 사적 기록으로서의 표해록(漂海錄) 등에 담긴 표류 인물, 거주지, 출해(出海) 지역, 출해 목적, 표류 기간, 표착지(漂着地), 송환(送還) 시기 등의 정보를 정리하고 해당 정보를 효과적으로 시각화하는 데 초점을 둔 연구의 기초 데이터베이스이다.

공동의 연구 플랫폼으로서 위키를 활용하는 가운데 온톨로지에 입각한 데이터 편찬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550여 건의 표류사건 데이터와 740여 건의 공간 데이터를 매개로 표류 기록을 전자지도상에서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각화 결과물 또한 구현하였다.

48) <조선시대 표류 노드 시각망 위키>는 2014년 한국연구재단 디지털인문학 사업으로 선정되어 1년간(2014.12.15.~2015.12.14.) 이루어진 <조선시대 표류 노드 시각망>연구의 결과물이다. 해당 연구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기초학문자료센터'에서 연구과제 상세정보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위키 url: http://dhlabs.aks.ac.kr/~ssrsa/wiki/index.php/조선시대_표류_노드_시각망

기초학문자료센터 url: <https://www.krm.or.kr/>

〈그림 14〉 위키 기반의 데이터로 구현한 조선시대 표류 기록 시각화⁴⁹⁾

위키를 통해 편찬된 인문 데이터를 가공해 본격적인 데이터 시각화 결과물을 구현한 사례로 ‘데이터로 다시 읽는 조선시대 양반의 일상: 『지암일기』 디지털 아카이빙 연구’⁵⁰⁾를 들 수 있다. 해당 연구는 『지암일기』를 대상으로 8만 2천여 건의 시맨틱 데이터를 편찬해 Graph DB와 LOD를 구축하고 데이터 시각화 결과물을 구현하였는데, <『지암일기』 원문 및 번역문 위키>는 그러한 정교한 작업을 가능케 한 기초 데이터베이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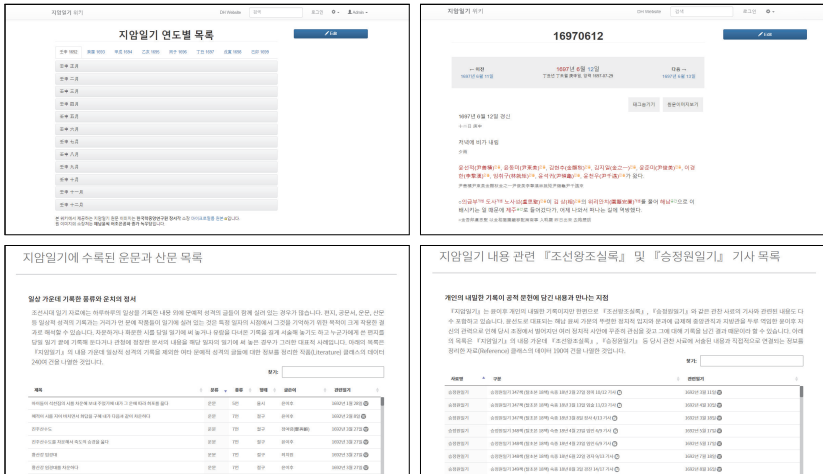
해당 위키는 온톨로지 설계 내용에 입각한 XML Scheme를 토대로 구현하였다. XML Scheme에 기초한 위키 페이지의 서술 형식을 디자인하고, 해당 형식을 기준으로 『지암일기』를 해독·번역한 8명의 연구자가 분담해 원문·번역문 텍스트를 입력하고 그로부터 유의미한 데이터를 마크업하는 과정을 약 1년간 지속한 끝에 나온 결과물이다.

49) 조선시대 표류 기록 시각화 결과물은 <조선시대 표류 노트 시각망>연구에 참여한 서소리 연구원(한국학중앙연구원 인문정보학 전공 박사과정 수료)에 의해 구현되었다. url: <http://soundh.net/drif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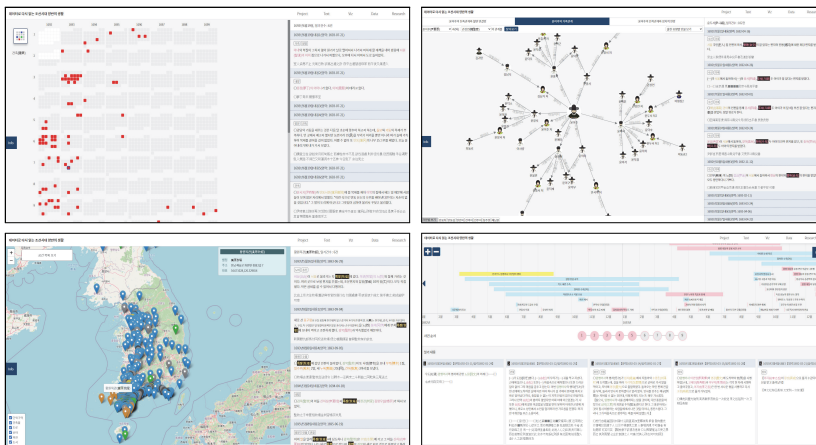
50) <데이터로 다시 읽는 조선시대 양반의 일상: 『지암일기』 디지털 아카이빙 연구>는 2016년 한국연구재단 디지털인문학 사업으로 선정되어 3년간(2016.09.01.~2019.08.31.) 이루어졌다. 해당 연구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기초학문자료센터’에서 연구과제 상세정보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현재 연구 결과물이 웹상에 개방적으로 공개되어 있는 상황이다.

연구 결과물 url: <http://jiandiary.info>

기초학문자료센터 url: <https://www.krm.or.kr/>

〈그림 15〉『지암일기』 원문 및 번역문 위키⁵¹⁾

위키를 기반으로 구축한 여러 방면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각각의 데이터가 지닌 특성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시각화 구현을 기획할 수 있다. 〈『지암일기』 원문 및 번역문 위키〉에 입력한 데이터를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 아래 〈그림 16〉에서 볼 수 있듯 다양한 형식의 시각화 결과물을 구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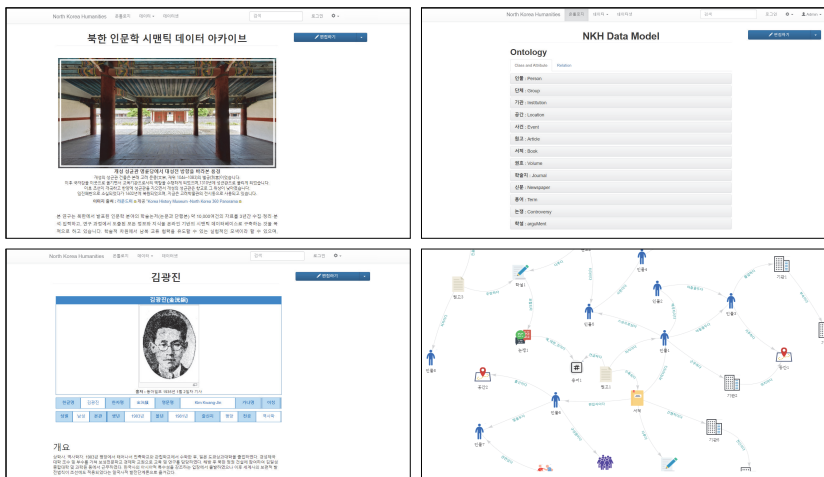
〈그림 16〉위키 기반의 『지암일기』 데이터로 구현한 다양한 시각화 결과물

51) 『지암일기』 원문 및 번역문 위키 url: <http://wiki.jiamdiary.info/wiki/>

(4) 협업으로서의 인문학 연구와 위키 기반 공동 글쓰기

앞서 살펴본 여러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디지털, 미디어, 데이터 리터러시에 입각해 인문학 분야에서 연구 자료를 수집·정리·분석하는 공동의 플랫폼으로서 위키가 꾸준히 활용되고 그 나름의 연구 성과를 산출함에 따라, 위키를 활용한 공동의 인문학 연구 역시 점진적으로 모색 중이다. <북한 인문학 시맨틱 데이터 아카이브 위키>와 <한국 근대 지식인 아카이브>는 위키를 기반으로 시도되고 있는 실험적인 연구 사례이다.

<북한 인문학 시맨틱 데이터 아카이브>는 북한에서 발표한 다량의 인문학 분야 학술논저(논문과 단행본)를 수집·정리·분석·입력하고, 연구 과정에서 도출된 모든 정보와 지식을 위키 기반의 시맨틱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플랫폼이다. 2021년 2월 현재 대규모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지는 않지만 기초 연구 데이터를 RDB에 구축하여 지식 그래프 형태의 시각화 결과물을 제공하고 있다.⁵²⁾ 향후 해당 연구 데이터를 위키 페이지로 편찬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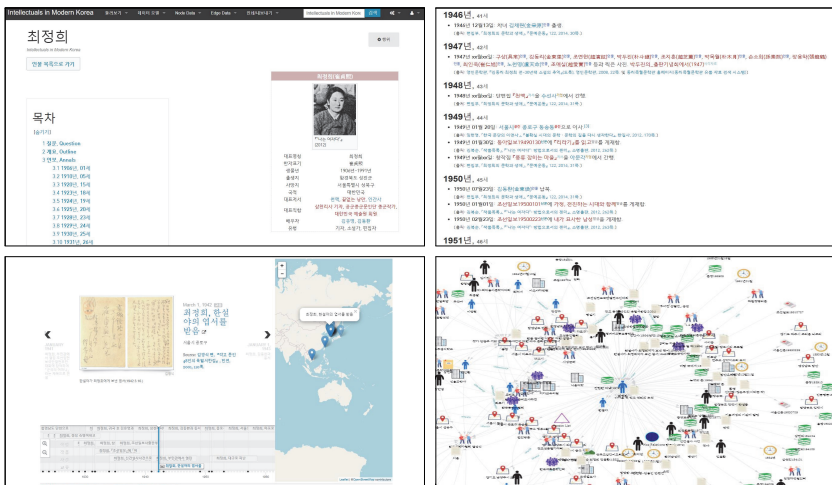


〈그림 17〉 북한 인문학 시맨틱 데이터 아카이브 위키⁵³⁾

52) 해당 시각화 결과물은 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인문학연구소에서 제공하는 시맨틱 데이터 기반의 네트워크 그래프 시각화 플랫폼을 활용해 구현한 것이다. 북한 인문학 데이터 시각화 출력을 위한 검색 페이지 url: <http://dh.aks.ac.kr/~nkh/search/nkhSearch.html>

〈북한 인문학 시맨틱 데이터 아카이브〉는 현재 전체 데이터의 형식을 가늠할 수 있는 기초 온톨로지를 설계하였고, 샘플로 공개한 ‘김광진’(인물) 페이지를 통해 데이터 모델링 작업과 그에 근거한 위키 페이지 작성을 논의하고 있다. 향후 RDB에 구축한 6,300여 건(Node: 2,900여 건, Edge: 3,400여 건)의 북한인문학 시맨틱 데이터가 여러 연구자의 협업을 거쳐 위키 페이지로 만들어진다면, 〈북한 인문학 시맨틱 데이터 아카이브〉는 다방면으로 확장 가능한 학술 데이터 아카이브로서 유용한 역할을 할 것이다.

〈한국 근대 지식인 아카이브〉는 한국근대문학 및 역사학 연구자들이 모여 위키 플랫폼을 활용해 근대 지식인 연보 작성과 지식의 공동 생산 가능성을 모색한 프로젝트이다.



〈그림 18〉 한국 근대 지식인 아카이브⁵⁴⁾

- 53) 〈북한 인문학 시맨틱 데이터 아카이브〉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주관 “2020년 통일역량 기반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북한 인문학 시맨틱 데이터 아카이브 구축〉 연구의 결과물 가운데 하나이다. 해당 연구는 2020년 3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약 11개월간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1차년도(2020)에는 RDB 구축 작업을 진행하였고 2차년도(2021)에는 위키 DB구축을 진행할 계획이다. 위키 url: <http://dh.aks.ac.kr/~nkh/wiki/>
- 54) 〈한국 근대 지식인 아카이브〉는 서울대학교 동아문화연구소 주관으로 2020년 10월부터 12월까지 약 2개월간 8주 과정으로 진행된 디지털 인문학 워크숍 프로젝트 공간이다. 워크숍은 종료되었으나, 해당 워크숍에 참여한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해당 위키를 인문학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꾸준히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위키 url: <http://dh.aks.ac.kr/imk/>

이 프로젝트는 2020년 가을에 서울대학교 동아문화연구소가 주최하여 8주간 진행한 ‘한국 근대 지식인 관계망 지도’ 작성 워크숍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 프로젝트가 중점을 둔 것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인문학 연구자들이 디지털 환경에서 신뢰할 수 있는 학술적 글쓰기 모델을 만드는 것이며, 또 하나는 데이터 기반의 인문학 공동연구 모델을 만드는 것이다.

한국근대문학 및 역사학 연구자 19명이 참여한 〈한국 근대 지식인 아카이브〉 프로젝트는 신뢰할 수 있는 한국 근대 지식인의 인물 연보를 작성하면서, 디지털 환경에서 통용 가능한 인문학 글쓰기 형식을 고민하였다. 참여자들은 각자의 전문 지식을 활용해 한국근대지식인의 생애와 실천을 체계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온톨로지 설계 작업을 공동으로 수행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데이터를 입력 중이며, 장기적으로는 각 연구자가 편찬한 데이터를 연결해서 종합적인 성격의 근대 지식인 관계망을 구현하고자 한다. 현재 해당 온라인 공간은 시작 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디지털 환경과 데이터를 활용한 인문학 연구자들의 공동 작업으로서의 의미를 바탕으로 추후 작업을 모색 중이다.

〈북한 인문학 시맨틱 데이터 아카이브 위키〉와 〈한국 근대 지식인 아카이브〉와 같은 사례는 글쓰기 공간으로서 인문학 위키의 가능성을 생각해볼게끔 만든다. 디지털 환경에서 인문학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글쓰기 플랫폼으로서 위키의 활용 여지를 확장하는 사례로서 그 의미가 있다.

2) 디지털 기반의 인문 교육 플랫폼으로서의 위키

위키는 인문학 연구 플랫폼으로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 플랫폼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디지털 인문학 연구의 성과는 디지털 인문학 교육으로 자연스럽게 환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키 역시 연구의 플랫폼이자 교육의 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다. 물론 연구와 교육의 차이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연구 플랫폼으로 위키를 활용할 때는 연구 대상의 특징을 고려하고 인문

학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디지털 리터러시, 미디어 리터러시, 데이터 리터러시를 비롯한 리터러시의 다양한 성격을 종합적으로 위키에서 활용한다. 이에 비해서 교육의 목적으로 위키를 활용할 경우에는 ‘협업’과 ‘공유’라는 위키의 철학을 토대로 여러 리터러시의 중층적 성격을 고려하면서도, 특정 리터러시에 집중한 교육 모델을 개발·활용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위키를 교육 플랫폼으로 삼아 웹 환경에서 접근 가능한 리터러시의 다양한 측면을 교육한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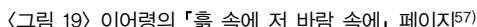
(1) 디지털 리터러시 습득과 위키

디지털 리터러시는 아날로그 환경과 다른 디지털 환경에서 유통되는 정보를 수용하고 디지털 형식의 정보를 표현하는 가운데 만나게 되는 새로운 이해와 표현의 양식 및 그 경험을 의미한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웹 환경은 인문학적 이해와 표현의 경험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디지털 혁명은 읽기와 쓰기의 기반이 되는 미디어를 0과 1의 조합으로 변화시켰으며, 이를 바탕으로 웹상의 커뮤니케이션 역시 0과 1로 조합되는 수열로 그때그때 새롭게 구성된다. 웹에서 조우하게 되는 리터러시 환경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요소는 하이퍼텍스트이다. 하이퍼텍스트는 고유한 의미의 관계를 자유롭게 생성하는 기술적 근거를 제시하는데,⁵⁵⁾ 이 기술은 고유한 개인의 고유한 읽기를 포착하는 데 유용하다. 위키의 핵심적 기능이 하이퍼텍스트임을 고려할 때, 위키는 하이퍼텍스트에 근거해 개인의 고유한 읽기를 제시할 수 있는 유용하면서도 간편한 인문학 교육 플랫폼으로 활용할 수 있다.

글쓰기 공간으로서 위키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하이퍼링크 기능을 활용해 자신의 텍스트 읽기를 기술하게 된다. 하이퍼텍스트에 입각한 위키 기반의 디지털 리터러시 학습은 지식 학습과 미적 체험 기술로 구성된다. 우선 지식 학습의 예로서 제시할 수 있는 사례는 〈출판과지식의생산〉 강의⁵⁶⁾의 한국출판문화사 위키 작성이다.

55) 이시다 히데타카, 앞의 책, 219쪽.

56) 경희대학교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2020년 2학기 〈출판과지식의생산〉



학생들은 표면적으로 디지털 환경에서 글쓰기를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양질의 지식과 정보를 결과물에 담아내기 위해서는 아날로그 환경의 도서관이나 기록관에 보관된 자료에 대한 검토와 수집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에 동의하게 된다. 또한 자신이 작성한 결과물이 추후 웹 환경에서 유통된다는 전제 하에 학술적 근거 및 신뢰 확보를 위해 참고문헌과 주석을 부기하는 과정을 능동적으로 경험하며, 온라인 연구 윤리를 학습한다. 나아가 각

온라인 강의실 url: <http://www.andonghakin.net/wiki/index.php/한국출판문화사>
57) url: <http://www.andonghakin.net/wiki/index.php/흙 속에 저 바람 속에>

학생이 수행한 작업 결과물은 공동의 토론을 통해 검증의 과정을 거친다. 검증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위기로 편찬한 지식의 질을 상호 확인하며, 웹상에서 인문학 지식을 전달하기에 적합한 체계와 형식의 문제를 토론하게 된다.

다른 한편, 학생들은 위키를 통해 자신의 미적 체험을 기술할 수 있다. 그 예로 〈수필교육론〉 강의⁵⁸⁾ 내용을 거론할 수 있다. 앞서 〈출판과 지식의 생산〉 강의가 위키 문서 작성 과정에서 도서에 대한 지식을 정리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면, 〈수필교육론〉 강의는 하나의 문학 텍스트를 자신의 시각에서 온전히 읽는 것을 목적으로 위키 문서를 작성하였다.

학생들은 텍스트를 읽는 가운데 해당 텍스트에서 중요하다 판단되는 구절을 선정한다. 또한 학생들은 자신이 선정한 구절이 왜 중요한지 그 의미를 잘 드러내는 다른 미디어 자료를 하이퍼링크 기능으로 제시한다. 예컨대 해당 구절과 비교 가능하거나 겹쳐 읽을 수 있는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등 웹의 다양한 자료를 하이퍼링크로 연결한다. 이와 같은 방식의 학습은 고유한 미적 체험으로서의 텍스트 읽기 경험을 극대화한다.

박지원의 「호곡장론(好哭場論)」

From red

작품 목록으로 돌아가기

본문

“조일 갑신(甲申) 중을.
정사와 한 가마를 타고 삼류하(三流河)를 건너서, 냉정(冷井)에서 아침밥을 먹었다. 10여 리를 가서 한 산모퉁이를 돌아오니, 태복(泰卜)이가 갑자기 몸을 굽히며 말 앞으로 달려 나와 땅에 엎드려 큰 소리로 말하기를,
“백담(白潭)이 보입니다.”
라고 했다. 태복은 정·진·사(鄭·進·史)의 마두다. 그러나 산모퉁이에 가려 백담은 아직 보이지 않았다. 말을 채찍질하여 수 십 보를 가서 산모퉁이를 벗어나자 안경(鴈鏡)이 아연어룡하에 눈에 젖었다 오로크내리락하에 현림했다. 나는 오늘에 처음으로 인생(人生)이란 아무런 의의하거나 불일 곳 없이 하늘을 머리에 얹고 땅을 밟으며 떠드는 것임을 알았다. 말을 세우고 사방을 둘러보다가 나도 모르게 손을 머리에 얹고 말하기를,
“아! 물기 좋은 곳이라구나. 가히 한 번 물 안하구나.”
라고 하였다. 그러자 정·진·사가 말하기를,
“이렇게 천진한데 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세 세계를 만나서 돌출을 생각하는 것은 어찌된 일입니까?”
라고 물었다. 내가 말하기를,
“맞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천고의 영웅들은 물기를 잘 하였고, 미인들도 눈물이 많았다고요. 그러나 그들은 몇 줄기 눈물을 흘린 것이 웃기에 굴러 떨어뜨렸을 뿐이지요. 그래서 천지에 가득 찬 울음, 쇠나 돌 같은 것로부터 울어나오는 울음소리는 듣지 못했지요. 그리고 사람들은 다만 칠정(七情:喜·怒·哀·樂·愛·惡·欲)의 앞길 가지 감정) 가운데 슬픔에만 우는 줄로 알고, 칠정 모두가 울 수 있는 줄은 모릅니다.
기개가 극에 이르르면 울게 되고 노여움도 극에 이르면 울게 되고, 즐거움도 극에 이르면 울게 되고, 사랑도 극에 이르면 울게 되고, 미움(惡)도 극에 이르르면 울게 되고, 욕심(欲)도 극에 이르면 울게 되고, 가슴이 답답함을 풀어버림에는 소리(를 지르는 것)보다 더 빠른 것이 없으니, 울음은 천진간에 우레 같은 것이지요. 지금 천정(天情)이 울려나오는 것. 이것이 눈치 치기에 맞는다며 웃고요. 웃음이 어찌 다라지겠는가?”

〈그림 20〉 박지원의 「호곡장론(好哭場論)」, 페이지 59

예컨대 박지원의 「호곡장론(好哭場論)」 페이지를 볼 경우, 해당 페이지를 작성한 학생은 “아! 울기 좋은 곳이로구나, 가히 한 번 울 만하구나.”, “기쁨이 극에 이르면 울게 되고”, “그 아이가 태중에 있을 때 캄캄하고 막혀서 갇갇하게 지내다가, 하루아침에 넓고 환한 곳으로 터져 나와 손발을 펴며 그 마음이 시원한 까닭입니다.” 등의 구절을 예능 동영상과 연결하여 자신의 미적 경험을 기술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학생이 선정한 구절의 중요성과 해당 구절에 연결한 미디어 자료의 내용을 교수자가 그대로 승인하는 것은 아니다. 학생이 특정 구절을 선택한 이유와, 해당 구절을 연결한 웹 자원의 적절성에 대해서 공동의 토론이 가능하며, 토론 또한 위키 플랫폼에서 수행할 수 있다. 디지털 리터러시를 습득하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디지털 환경의 이해와 표현을 익히는 동시에 기존보다 더 깊이 있는 읽기 경험을 수행하게 된다. 나아가 웹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자료를 활용한 텍스트의 겹쳐 읽기는 텍스트를 재해석하는 한 편 디지털 환경에서 인문학적 해석과 실천을 확산하는 계기가 된다.

빌렘 플루서는 디지털 환경에서 독자는 작가가 정해둔 의미의 틀을 읽는 것에 자신의 역할을 한정하지 않는다고 언급하면서, 이제 독자는 “더 이상 행을 따라 가면서 읽지 않고, 자신의 고유한 망(Netz)을 짜고 있다.”라고 정리하였다.⁶⁰⁾ 위키를 매개로 학생들은 고정된 의미의 읽기와 쓰기 학습으로부터 해방되어, 아날로그와 디지털 환경에 존재하는 다양한 자원에 능동적으로 접근함으로써, 자신만의 고유한 읽기를 수행하고 동시에 그 과정과 결과를 디지털 환경에 기록하게 된다. 위키를 활용한 디지털 리터러시 습득은 고유한 경험인 동시에 비선형적이며 자율적인 체험이다.

(2) 미디어 리터러시 훈련과 위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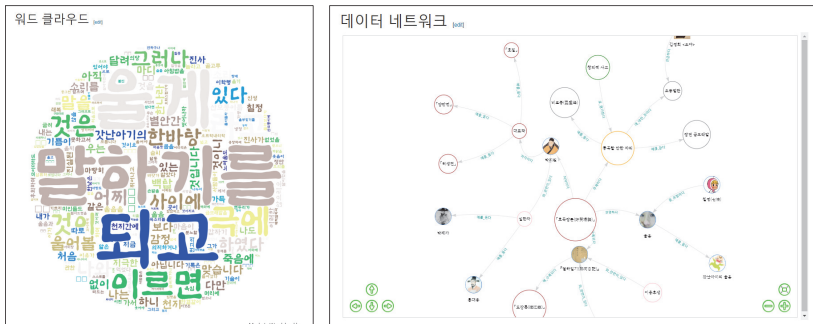
미디어 리터러시의 관점에서 위키의 활용은 이해와 표현 형식의 미디어적 확장(extension)을 의미한다. 위키를 통한 이해와 표현은 단일 미디어로서의

59) url: [http://dh.aks.ac.kr/~red/wiki/index.php/박지원의_「호곡장론\(好哭場論\)」](http://dh.aks.ac.kr/~red/wiki/index.php/박지원의_「호곡장론(好哭場論)」)

60) 빌렘 플루서, 앞의 책, 246쪽.

성격을 지닌 아날로그 글쓰기를 넘어서서 다양한 미디어와 연결할 수 있다. 위키는 멀티미디어 플랫폼으로서 미디어적 연결 속에서 새로운 인문학적 이해와 표현 형식의 가능성과 토대를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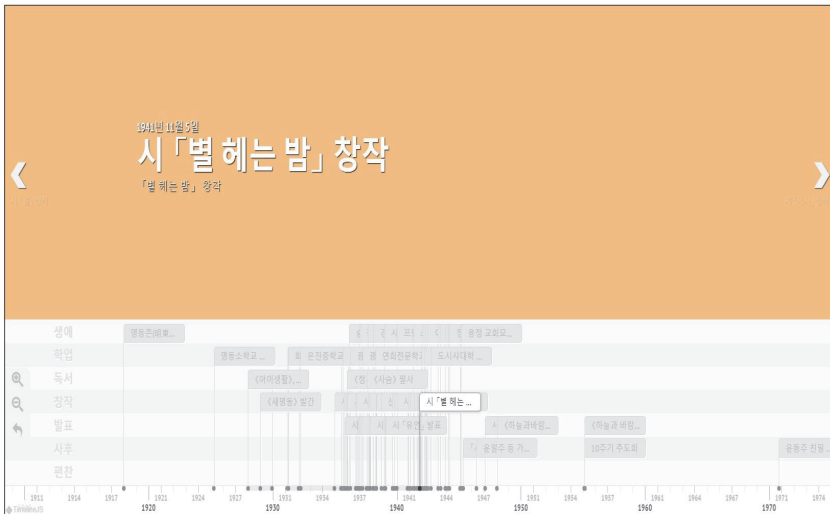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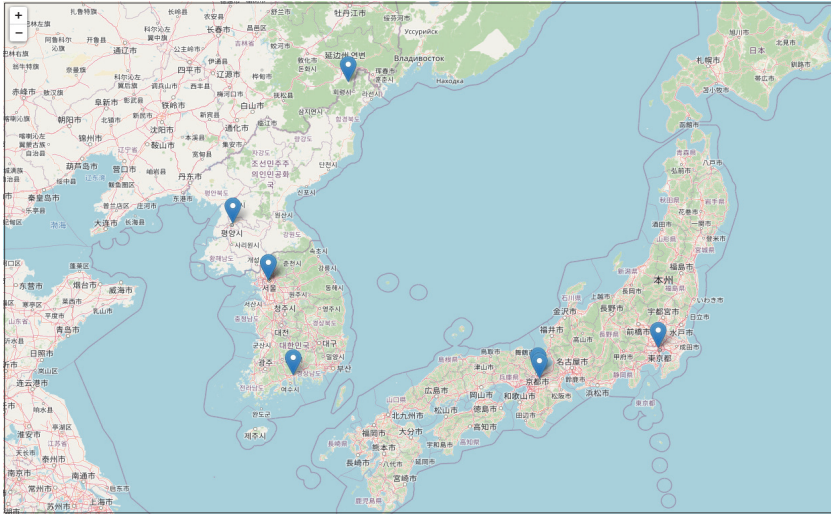
앞장에서 언급했듯이 위키는 인문학 지식을 정리하고 그 과정에서 얻는 미적 경험을 제시하는 데 적합한 플랫폼이다. 학습자로서 위키 문서 편찬에 참여하는 학생은 웹상에 존재하는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등의 멀티미디어 자원을 하이퍼링크로 연결할 수 있다. 또한 위키의 미디어적 확장은 하이퍼 텍스트의 연결(link)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워드클라우드, 그래프, 맵, 타임라인 등 확장 기능으로 지원하거나 위키 문서에 임베딩이 가능한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하여 자신의 텍스트 읽기를 표현할 수 있다.



〈그림 21〉 박지원의 『호곡장론(好哭場論)』 멀티미디어 결과물⁶¹⁾

위의 〈수필교육론〉 강의에서 구현한 박지원의 『호곡장론(好哭場論)』 사례는, 작품 텍스트를 활용해 워드클라우드를 만들어봄으로써 어떠한 어휘나 표현이 중심적으로 나타나는지 시각적으로 검토하고, 한편으로 해당 작품의 작가와 장르 및 내용 정보 그리고 감상의 경험까지 연결한 지식 그래프를 그린 경우이다. 텍스트를 선형적으로 읽는 경험에서 벗어나, 다양한 미디어 형식으로 해당 텍스트를 재구성하는 경험은 작품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전달함과 동시에 디지털 미디어를 주도적으로 다루는 역량을 함께 길러준다.

61) url: [http://dh.aks.ac.kr/~red/wiki/index.php/박지원의_『호곡장론\(好哭場論\)』](http://dh.aks.ac.kr/~red/wiki/index.php/박지원의_『호곡장론(好哭場論)』)

〈그림 22〉 윤동주의 생애 전자지도 및 전자연표⁶²⁾

위의 〈현대소설과디지털인문학〉 강의⁶³⁾에서 구현된 윤동주를 대상으로 한 전자지도(map)와 전자연표(timeline) 구현 사례 또한 마찬가지다. 작가를

62) url: <http://www.andonghakin.net/wiki/index.php/윤동주>

63) 경희대학교 문과대학 국어국문학 2020년 1학기 〈현대소설과디지털인문학〉

온라인 강의실 url: <http://www.andonghakin.net/wiki/index.php/윤동주>

이해하는 과정에서 그의 삶과 작품세계의 바탕이 되는 여러 공간을 찾아 전 자지도에 매핑하고, 시간을 기준으로 생애를 분절하여 전자연표로 구현하는 작업은 작가의 삶을 정밀하게 정리하고 이해하는 경험이자, 디지털 환경에서 그것을 표현하는 시도이다.

학생들은 위키를 활용하여 자신이 학습한 정보와 자신의 미적 체험을 다양한 미디어로 표현한다. 이 과정은 기존의 선형적인 글쓰기로 충분히 표현하지 못하는 정보 및 미적 체험을 보다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미디어가 무엇일지 고민하고 그것을 찾아서 표현하는 경험이라 할 수 있다. 위키 환경에서 학생은 자신이 무엇을 표현하고자 하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다른 한 편 어떠한 미디어에 근거해 자신의 지식과 체험을 표현해야 할 것인지 숙고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자신의 고유한 미디어 리터러시를 구성하게 된다.⁶⁴⁾

(3) 데이터 리터러시 이해와 위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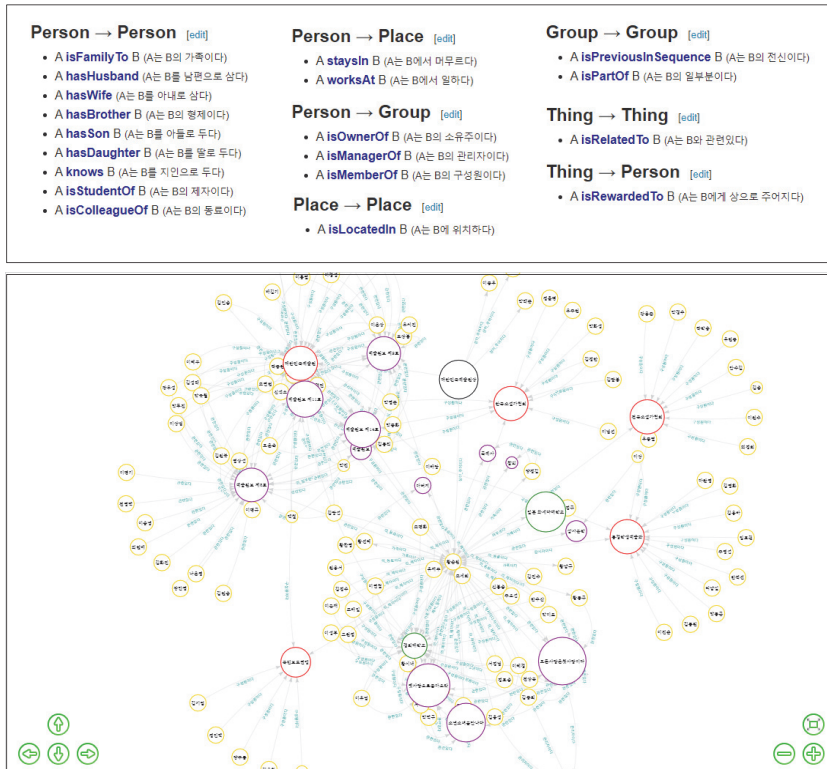
데이터베이스로서의 위키에 대한 접근은 데이터를 다루는 맥락에서의 이해를 전제로 이루어진다. 데이터에 초점을 둔 위키의 활용을 통해 학생들은 정보와 지식을 다루는 최소 단위로서 데이터(data)에 대한 개념적 이해를 도모하고 실제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기초적 시각을 형성하게 된다.

예컨대 위키(미디어위키)를 통해 편찬된 문서는 RDB와 연계하여 데이터로 저장·관리되고, 웹 표준 형식인 XML 포맷의 데이터로 변환 가능하며, 온톨로지 체계에 입각한 문서 편찬이 이루어질 경우 SPARQL 기반의 LOD 구현도 가능하다. 이러한 기능을 바탕으로 데이터 편찬 공간으로서의 위키를 교육에 활용할 수 있다.

데이터 리터러시에 초점을 둔 학습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다루고자 하는 대상에 적합한 온톨로지를 설계하고 그에 기초한 데이터 편찬을 경험하는 것이다. 교수자는 학생들과 함께 연구 대상의 특징을 반영한 데이터 모델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를 토론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기본적인 온톨로지 체

64) 이 문장은 이시다 히데타카, 앞의 책, 181쪽에 참조하여 서술하였다.

계를 반영한 위키 문서를 편찬할 수 있다. 편찬된 위키 문서는 각각이 고유한 데이터이기도 하기 때문에, 각 위키 문서 사이의 의미 관계를 반영한 데이터 네트워크를 구현할 수 있으며 또한 위키 문서를 자료로 활용하여 독립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



〈그림 23〉 ‘황순원과 주변인물’의 온톨로지 및 네트워크 그래프⁶⁵⁾

〈디지털인문학의이해〉 강의⁶⁶⁾에서 구현한 ‘황순원과 주변인물’에 대한 온톨로지와 데이터 네트워크 시각화 결과물은 데이터 설계 및 편찬 과정을 거

65) url: <http://dh.aks.ac.kr/~red/wiki/index.php/HwangsunwonAndPeople>

66) 경희대학교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2020년 1학기 〈디지털인문학의이해〉

온라인 강의실 url: <http://dh.aks.ac.kr/~red/wiki/index.php/UnderstandingOfDigitalHumanities>

쳐 학생들이 직접 작업한 것이다. 학생들은 교수자와 함께 기초적인 데이터 모델링을 고민하고 그것을 토대로 데이터를 수집·정리하여 작게나마 결과물을 구현하는 데까지 나아간 사례라 할 수 있다.

디지털 미디어의 커뮤니케이션 행동은 컴퓨터의 미분 원리로 정렬되어 있다.⁶⁷⁾ 다루고자 하는 대상 지식을 컴퓨터가 이해하고 처리 가능한 데이터 형식으로 설계·입력·정리하는 데이터 리터러시는 디지털 미디어가 보편화된 현대에 인문학 전공자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이해와 표현의 양식이라 할 수 있다. 그 연장선상에서 위키를 통해 데이터 리터러시의 기본 개념을 익히고 전달하는 교육은 보다 심화된 인문 데이터 처리 연구를 위한 토대가 될 수 있다.

5. 맺음말: 혁명을 넘어 일상으로

레이먼드 윌리엄스는 민주주의 혁명, 산업 혁명, 그리고 문화 혁명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하면서, 그 “상호작용”을 가능하도록 하는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특히 그는 민주주의의 성장과 산업·테크놀로지의 발전과 같은 반열에 “글을 읽는 능력”을 두었으며, 배움을 “전 민중에게 확대하려는 열망이 민주주의의 성장이나 과학적 산업의 발흥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면서, 지금의 역사를 “인간과 제도를 변형시키는 진정한 혁명”인 “기나긴 혁명”의 과정으로 이해하였다.⁶⁸⁾ 1961년에 제출된 그의 통찰은, 문식성이 폭발적으로 확산되고 얇은 민주주의가 확산되던 근대 사회의 한 특징을 포착한 것이었다.

한국 역시 1930년대 전체 문해력을 갖춘 조선인의 비율이 11%에 지나지 않았고 농촌지역의 문맹률이 90%를 상회하던 상황이었음을 감안한다면, 80% 이상의 고졸자가 대학에 진학하는 2010년 현재 사이에는 ‘압축혁명’이

67) 이시다 히데타카, 앞의 책, 157쪽.

68) 레이먼드 윌리엄스, 성은애 역, 『기나긴 혁명』, 문학동네, 2007, 12~17쪽.

라 명명할 정도로 읽과 문식성의 사회적 의미에 큰 변화가 있었다. 한국의 지식사와 문화사의 전개과정에서는 지식인과 대중을 구별 짓는 논의가 거듭 회귀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소통과 수평적 연대, 집단적 참여를 특성으로 하는 ‘대중지성’의 예에서 볼 수 있듯, 웹 환경에 근거한 ‘집합지성’은 새로운 읽과 인문학 실천의 토대로 주목받고 있다.⁶⁹⁾

이 글은 이러한 역사적 맥락과 전환을 염두에 두고, 글쓰기의 새로운 토대인 디지털 환경에 유의하여 인문학 연구 및 교육 플랫폼으로서 위키가 지닌 가능성을 검토해보고자 하였다. 소프트웨어 엔진이자 데이터베이스이자 웹 사이트로서 위키는 협업으로서의 지식 편찬에 유용하고 편찬된 지식을 효과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 가운데 하나이다. 디지털 리터러시, 미디어 리터러시, 데이터 리터러시를 중층적으로 포괄함으로써, 위키는 비선형적이며 조합적인 인문학 글쓰기를 위한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다. 위키의 이러한 특징은 아날로그 환경의 선형적 글쓰기를 보완하면서 텍스트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표현을 가능하게끔 한다.

위키는 “협동과 공유를 위한 디지털 글쓰기 플랫폼”이다. 한편으로 위키를 통한 인문학적 실천은 “자신의 가치관, 사고방식, 주의력의 배분을 스스로 인식하고 자기 자신의 정보생활을 디자인할 수 있는 노하우와 환경을 확보”하는 과정이며, 이러한 측면에서 위키는 “디지털 미디어를 기반으로 한 생활에서 자기 자신의 재귀화를 위한 플랫폼”⁷⁰⁾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위키는 ‘공유’와 ‘협동’의 플랫폼인 동시에 디지털 시대 인문학적 실천을 통해 ‘자기’를 이해하고 표현하기 위한 플랫폼으로서의 가능성을 포괄하고 있는 것이다.

이 글에서 다룬 위키는 디지털 환경을 바탕으로 인문학 글쓰기를 돌아볼 수 있는 여러 지식 플랫폼 가운데 하나이다. 위키 외에도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지식을 구성·해석하는 여러 플랫폼이 현재 웹 환경에서 다양하게 유통되고 있다. 위키 외의 여러 지식 플랫폼을 살펴보고 디지털 환경과 인문학의 관계를 한층 더 깊이 논의하는 것을 추후의 과제로 남긴다.

69) 천정환, 『대중지성의 시대』, 푸른역사, 2008, 102~103, 111, 122쪽.

70) 이시다 히데타카, 윤대석 역, 앞의 책, 240쪽.

■ 참고문헌

1. 자료

- <위키피디아 20주년 기념 페이지> <https://wikimediafoundation.org/wikipedia20/>
- <영문위키피디아: Five Pillars> https://en.wikipedia.org/wiki/Wikipedia:Five_pillars
- <한국어위키피디아: 다섯 원칙> https://ko.wikipedia.org/wiki/위키백과:다섯_원칙
- <나무위키의 기본방침> <https://namu.wiki/w/나무위키:기본방침>
- <고클래식 위키사전> <http://ko.goclassic.co.kr/wiki/>
- <Go!클래식 고전음악 웹사이트> <http://www.goclassic.co.kr/>
- <조선왕조실록 전문사전위키> <http://dh.aks.ac.kr/sillokwiki/>
- <공공데이터포털, 조선왕조실록 전문사전 데이터> <https://www.data.go.kr/data/15007877/fileData.do>
- <미디어위키: Extension:MultiMaps> <https://www.mediawiki.org/wiki/Extension:MultiMaps>
- <미디어위키: Extension:EasyTimeline> <https://www.mediawiki.org/wiki/Extension:EasyTimeline>
- <미디어위키: Extension:Graph> <https://www.mediawiki.org/wiki/Extension:Graph/ko>
- <수신사 및 조사시찰단 자료 아카이브> <http://dh.aks.ac.kr/susinsa/>
- <내한선교사편지 디지털 아카이브> <http://dh.aks.ac.kr/~missionary/index.html>
- <서삼릉 태실 및 분묘 아카이브> <http://dh.aks.ac.kr/seosamneung/>
- <위키데이터> <https://www.wikidata.org/>
- <위키데이터: Yun Dong-ju (Q625089)> <https://www.wikidata.org/wiki/Q625089>
- <위키데이터: 쿼리 서비스> <https://query.wikidata.org/>
- <위키데이터: 쿼리 서비스/사용자 매뉴얼>
https://www.mediawiki.org/wiki/Wikidata_Query_Service/User_Manual/ko
- <위키데이터: Data donation> https://www.wikidata.org/wiki/Wikidata:Data_donation
- <위키위키웹> <http://wiki.c2.com/>
- <유튜브: WikiWars Championship> <https://youtu.be/FdJN2iK0BS0>
- <조선시대 표류 노트 시각망 위키>
http://dhlab.aks.ac.kr/~ssrssa/wiki/index.php/조선시대_표류_노트_시각망
- <조선시대 표류 기록 시각화 결과물> <http://soundh.net/drift/>
- <데이터로 다시 읽는 조선시대 양반의 일상: 『지암일기』 DH 연구 결과물 웹사이트> <http://jiamdiary.info>
- <『지암일기』 원문 및 번역문 위키> <http://wiki.jiamdiary.info/wiki/>
- <북한인문학 시맨틱 데이터 아카이브 위키> <http://dh.aks.ac.kr/~nkh/wiki/>
- <북한인문학 데이터 시각화 출력 페이지> <http://dh.aks.ac.kr/~nkh/search/nkhSearch.html>
- <한국 근대 지식인 아카이브> <http://dh.aks.ac.kr/imk/>
- <Cunningham & Cunningham, Inc. 웹사이트: Correspondence on the Etymology of Wiki>
<http://c2.com/doc/etymology.html>
- <Cunningham & Cunningham, Inc. 웹사이트: mail-history> <http://c2.com/wiki/mail-history.txt>
- <Malia Spencer, "5 questions with Portland-based wiki inventor Ward Cunningham", *PORTLAND BUSINESS JOURNAL*, 2016.7.18.>

<https://www.bizjournals.com/portland/blog/techflash/2016/07/5-questions-with-portland-based-wiki-inventor-ward.html>

<경희대학교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2020-2 출판과지식의생산 온라인 강의실>

<http://www.andonghakin.net/wiki/index.php/한국출판문화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 전공 2019-2 수필교육론 온라인 강의실>

<http://dh.aks.ac.kr/~red/wiki/index.php/EssayLiterature>

<경희대학교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2020-1 현대소설과디지털인문학 온라인 강의실>

<http://www.andonghakin.net/wiki/index.php/윤동주>

<경희대학교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2020-1 디지털인문학의이해 온라인 강의실>

<http://dh.aks.ac.kr/~red/wiki/index.php/UnderstandingOfDigitalHumanities>

2. 논문

김수아, 『지식의 편향 구조와 혐오: 국내 위키 서비스 ‘여성혐오’ 논란을 중심으로』, 『미디어, 젠더&문화』 35(1),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2020.

류인태, 『디지털 인문학은 인문학이다』, 『인문논총』 77(3),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20.

3. 단행본

정과리, 『문명의 배꼽』, 문학과지성사, 1998.

진주완 · 정철 · 류철,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사계절, 2018.

천정환, 『대중지성의 시대』, 푸른역사, 2008.

레이먼드 윌리엄스, 성은애 역, 『기나긴 혁명』, 문학동네, 2007.

빌렘 플루서, 윤종석 역, 『글쓰기에 미래는 있는가』, xbooks, 2015.

울리히 벡, 홍성태 역, 『위험사회 - 새로운 근대(성)를 향하여』, 새물결, 1997.

이시다 히데타카, 윤대석 역, 『디지털 미디어의 이해 - 플랫폼과 알고리즘의 시대 읽기』, 사회평론, 2017.

Leuf, B., & Cunningham, W., *The Wiki way: Quick collaboration on the Web*, Boston: Addison-Wesley, 2001.

A Study on the Wiki as Writing Platform for Sharing and Collaboration

Kim Ji-sun* · Jang Moon-seok** · Ryu Intae***

This article aims to examine the digital environment as a new space for writing, and comprehensively reviews the value and availability of Wiki as a platform for humanities research and education. In Chapter 1, this article compares the differences between linear writing in analog environments and combinatorial writing in digital environments. In Chapter 2, this article describes the meaning of Wiki in three aspects: software engine, database, and website. Furthermore, this article discusses the availability of Wiki as a multimedia utilization platform and a constructing data platform. In Chapter 3, this article explores the possibility of Wiki, a platform of cooperation and sharing, being utilized in the humanities field while reviewing the representative cases of Wiki use on the web. In Chapter 4, this article explores several cases in which Wiki was utilized as a platform for humanities research, and examines the various ways of humanities education possible in the Wiki environment in terms of digital literacy, media literacy, and data literacy.

Key words : Wiki, Mediawiki, Wikidata, Collective Intelligence, Electronic Writing, Hypertext, Digital Literacy, Media Literacy, Data Literacy, Digital Humanities, Research, Education

논문투고일 : 2021년 1월 22일 || 심사완료일 : 2021년 2월 22일 || 게재확정일 : 2021년 2월 25일

* Ph.D Student, Major in Cultural Informatics, The Graduate School of Korean Studies,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co-first author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Kyung Hee University, co-first author

*** Postdoctoral fellow,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Sungkyunkwan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